No.1 시니어 전문 케어
센터메디컬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February 14 2025 Vol. 948

美 복음주의자 70% "난민 수용은 도덕적 의무"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복음주의자들 대다수는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도덕적 의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최근 미국 내 이민 정책에 대한 복음주의자들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1월 13일에서 21일 사이 실시된 인터뷰를 기반으로 했으며 오차 범위는 +/-3.1%다.

설문조사 후원자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해 온 복음주의 단체가 포함됐다. 여기에는 복음주의 이민 테이블(Evangelical Immigration Table), 전미라틴복음주의자협회(National Latino Evangelical Coalition), 전미복음주의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의 인도주의 부서인 월드 릴리프(World Relief)가 포함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2024 회계연도에 1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미국에 재정착하면서 지난 30년 동안 가장 높은 연간 재정착률을 기록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후 미국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설문조사는 응답자들에게 "미국이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도덕적 책임"이라는 진술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미국 법률은 난민을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의견과 같은 특정 요소로 인해 박해를 피해 도망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복음주의 응답자의 약 70%는 이 진술에 강력히 또는 다소 동의한다고 답했고, 23%는 이 진술에 다소 또는 강력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7%는 확신이 없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3분의 2는 "기독교인은 난민과 다른 외국인을 희생적으로 돌볼 책임이 있다"는 진술에 동의했다.

불법 이민에 대해서는,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복음주의자가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 이민자(67%)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불법 이민자(63%)를 추방하는 것을 지지했다. 그러나 다른 불법 이민자 집단을 추방하는 것은 훨씬 덜 우선시되었다.

복음주의자들 중 절반도 안 되는 응답자는 불법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벌금 납부를 거부한 사람들(30%), 지난 5년 이내에 미국으로 들어온 불법 이민자(25%), 어린 시절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19%)을 추방해야 한다고 답했다.

복음주의자들 중에서도 불법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벌금 납부를 감수할 사람(17%), 5~10년 전 미국에 온 불법 이민자(16%),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한 불법 이민자(14%), 미국 시민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사람(14%),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와 결혼한 개인(14%)을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훨씬 적었다.

이미경 기자 ➔ 2면에서 계속

세리토스선교 40주년, "주 앞에 순결한 신부되자"

새누리교회 손경일 목사 초청
"죄의 유혹, 늑대 사냥과 같아
죄의 유혹 끊는 길은..."

세리토스선교교회(방상용 목사)가 9일 오전 11시에 창립 40주년 감사예배를 거행했다.

설교를 한 손경일 목사(새누리교회)는 산호세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며, 교인 80%가 40대 미만으로 알려졌다. 손 목사는 주일예배에서 "하나님의 상식을 살라"(에베소서 5장 3-7절)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교회는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곳"이라며 하나님의 상식 위에 굳건히 서기를 바란다고 했다.

손 목사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말하며, 작은 무질서가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듯이 죄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죄는 이름조차도 올리지 말라"는 에베소서 5장 3절을 읽으며,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고 철저히 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늑대 사냥에 비유해 죄의 유혹을 경고했다. "사냥꾼들은 날카로운 칼에 피를 묻혀 얼려 놓고, 늑대가 그 피를 핥도록 유도한다. 결국 늑대는 자신의 혀가 베인 줄도 모른 채 계속 핥다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다"며, 죄가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사람을 파멸로 이끈다고 했다.

이어 본문에서 죄를 말하며 음행을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결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하며,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이 살면 죄가 들어오고 죄에 무뎌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죄를 허용하는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강조하며, 부부관계를 예로 들었다. "한 남편이 '364일은 좋은 남편이 될 테니 하루만 다른 여자와 보내겠다'고 한다면 아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순결한 신앙을 원하신다"고 설명했다.



세리토스선교교회가 9일 오전 11시에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감사예배를 거행했다. 방상용 목사가 교회 40년 동안 출석한 성도들에게 꽃다발을 증정하고 있다. ©기독일보

그러면서 실리콘밸리에 많은 이들이 부를 추구하고 세상의 성공을 좇아살고 있는데 그것은 우상숭배라며, "우리 안에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죄를 멀리하는 자신을 보게 된다. 말씀과 찬양으로 나를 채웠더니 예전에 나를 유혹하는 것들을 멀리하게 된다"고 했다.

손 목사는 인간의 타락을 대표하는 두 가지 요소로 '성적인 타락'과 '말의 타락'을 꼽았다. "저속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며, 말 한 마디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상의 상식은 불평이지만, 하나님의 상식은 감사"라며, "행복은 감사할 때 찾아오고, 불평할 때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의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감사하는 것"이라며, 항상 감사하는 태도를 가질 것을 권면했다.

손 목사는 "앞으로 세리토스선교교회의 40년은 하나님의 상식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세리토스선교교회는 40주년을 맞아 메시아 연주회와 말씀 집회를 개최했으며 2월 16일(주일) 4시 홈커밍데이, 28일(금) 오후 7시 찬양집회를 열 계획이다.

토마스 맹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5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이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전기로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신뢰 —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 / 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섣불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현)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현)굿네이버스 USA 이사장
(전)남가주 교회협의회 고문변호사
(전)재미발명가협회 고문변호사
(전)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a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개신교에서 약화된 사순절 전통 되살리는 이유는...”

2025년 사순절 시작은 3월 5일(수) 재의 수요일

2025년 사순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사순절은 3월 5일(수)부터 4월 19일(토)까지이다.

매년 사순절이 되면 월드쉐어 USA (대표 강태광 목사)는, 하루 한 끼씩 금식하고 그 식비를 선교지 후원을 위해 헌금하는 “사순절 금식을 나눔의 금식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강태광 목사가 사순절 금식 나눔 행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종교개혁을 거치며, 개신교가 기독교 초기 사순절의 소중한 전통을 잃어버렸다”는 안타까움 때문이다.



매년 사순절이 되면 월드쉐어 USA (대표 강태광 목사)는, 하루 한 끼씩 금식하고 그 식비를 선교지 후원을 위해 헌금하는 “사순절 금식을 나눔의 금식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기독일보

개신교에서 사순절 전통이 약화된 이유

“초창기 사순절은, 영성 훈련과 영적 성장과 교회 갱신의 중요한 절기였다. 중세에 들어서면서, 교황은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했다. 테일러 마샬이라는 학자는 당시 사순절이 지금의 라마단보다 훨씬 혹독하고 길었다고 말한다. 교황 그레고리 1세(Pope Gregory I, 540-604)는 피가 섞인 고기를 먹지 못하게 했고, 8-9세기부터는 계란도 먹지 못하게 했다. 게오르크 스텐겔은, ‘사순절 내내 계란을 금지해, 계란이 남아돌게 되었고, 그것이 부활절 계란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분석한다. 또, ‘고기는 안 되지만, 어류는 된다’고 해서, 수도원에서 고기를 물에 담갔다가 꺼낸 후 이것은 물고기라고 주장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수도원은 이런 식으로 지나친 금욕에 저항하기도 했다.”

“츠빙글리가 활동했던 1500년대에는 소시지도 금지되었다. 당시 취리히의 한 인쇄업자가 노동자들에게 성경 출판 기념 파티를 하면서 소시지를 대접했는데 로마 교회는 이것을 문제 삼아서 그들을 처벌하려 했고 츠빙글리는 이에 저항했다. 사순절 논쟁이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다.”

강태광 목사는 4-5세기 사순절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40일 동안 돌아보고, 마지막 고난 예수님과 동행하는 뜻깊은 절기였다고 말했다. 월드쉐어USA에서는, 이 전통을 다시 살려, 사순절 동안 금식하며 그 금식비를 모아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수리남, 우크라이나, 필리핀 등 선교지를 돕는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한, 올해 사순절 모금액은 LA 산불 피해자들 돕는 데에도 사용될 계획이다. 특히 한인 목회자 가운데서도 집이 전소 당하는 큰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다. 월드쉐어 USA는 LA 지역 산불 피해자 중에 한인 피해자들의 피해를 접수하고 그들을 돕고 있다.

3달러...선교지 한 가족의 하루 식비

그는 한 끼 3달러 금액이면, 이들 선교지에서 한 가족이 하루를 먹을 수 있다며, 사순절 기간 이들 선교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르치고, 부활절에는 온 마을 파티를 열어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 교회들은 사순절 금식 모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월드쉐어 USA에서는 ‘나눔의 사순절 준비 위원회’를 만들어 각 교회들에게 사순절의 중요성을 알리고 동참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강 목사는,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사계절을 잘 즐기는 것이듯, 영적인 절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절에는 감사를 깊이 묵상하고, 교회들이 이런 절기를 잘 활용하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디 한 기자

원하트 미니스트리, 마더십 프로젝트

남가주 문화사역단체 원하트 미니스트리(이하 원하트)가 1년간 매달 지역 교회의 청년들과 연합하여 찬양집회를 개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번 연합집회의 주제는 ‘Mothership Project(마더십 프로젝트)’로, 신앙의 항해에 모체선박(mothership)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역 교회가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준비했으며, ‘원하트’가 지역 교회들을 찾아가 청년들과 연합해 찬양집회를 드드게 된다. 찬양집회는 원하트 워십과 지역 교회의 청년 인도자 또는 싱어들들이 연합해 진행되며, 말씀은 해당 교회의 담당 교역자가 전한다.

2025년 ‘마더십 프로젝트’ 첫 연합집회는 오는 2월 28일(금) 저녁 7시 30분 라미라다에 위치한 오버플로잉교회에서 그 포문을 연다.

‘원하트’는 오버플로잉교회에서의 연합집회를 시작으로 7월까지 상반기 마더십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함께 연합할 교회는 사랑의빛선교교회, 뉴라이프 선교교회, 원웨이 침례교회, 오렌지 카운티 제일 장로교회이다.

참여하는 교회마다 연합집회를 여는 날짜는 다르지만, 열리는 연합집회마다 함께 중보하고 예배하며 모체 선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하나 되기에 힘쓰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원하트 미니스트리가 지역 교회 청년들과 연합 운동을 이어간다. ⓒ원하트 미니스트리

2025년 하반기에 연합집회를 희망하는 교회들을 위한 집회 신청이 현재 진행중이다. 아울러, 찬양 보컬과 밴드, 기타 집회 준비로 함께 예배를 섬길 청년들도 모집하고 있다. 신청 및 문의는 213.347. 5080(김혜지 간사)으로 하면 된다. 원하트 미니스트리 기사 제공

“나눌 때 얻게 되는 기쁨과 행복 있어”

미주복음방송이 ‘은혜’ 작사·작곡가인 손경민 목사와 The 은혜 워십팀(찬양사역자 이윤화, 주리, 김정희, 이기명)과 함께 2월 14일(금)부터 2월 23일(일)까지 ‘2025 나눔On 희망On 자선콘서트’를 개최한다.

2020년 팬데믹으로 시작된 ‘나눔On 프로젝트’는 지난 5년간 약 95만 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해 전세계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손경민 목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 연약한 형제를 위해 우리가 나눌 때, 주시는 기쁨이 있다”며 이번 콘서트를 통해 “은혜를 받은 자”라는 신곡을 처음 선 보일 계획이라고 나눴다.

2025년에는 특별히 LA 인근 산불 피해자들을 비롯해 미얀마 카렌족,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자선단체와 다음 세대를 위한 ‘동행과 상생’ 프로젝트에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티켓($20)은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www.kgbc.com)에서 온라인 구매 및 전화(714-484-1190)로 구매 가능하다.

나눔On 공개모금생방송

또한 2월 19일(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될 ‘2025 나눔On 공개모금생방송’ 에서는 손경민 목사와 The은혜 워십팀이 참여해 생방송을 이끌어 갈 예정이고, 이 날은 전화나 온라인 결제를 통해 특별헌금으로 동참할 수 있다.



‘2025년 나눔On 희망On 자선 콘서트’ ⓒGBC

자선콘서트 일시 및 장소

2/14(금) 7pm 감사한인교회
2/15(토) 6pm 인랜드교회
2/16(주일) 6pm 샌디에고갈보리장로교회
2/21(금) 7pm 얼바인온누리교회
2/22(토) 6pm 에브리데이교회
2/23(주일) 6pm 충현선교교회



레몬법 전문
Proverbs 31:8 Law
잠언 로펌



▸ 한인사회 한인들의 권리를 최선을 다해 변호해 드립니다.
▸ 워런티(Warranty) 보증기간이 남은 새차, 리스차, 중고차
▸ 반복적인 문제로 새차교환 현금보상해 드립니다.
▸ 자동차 딜러샵 최고 1~2회 이상 수리한 사실

변호사 비용은 100% 무료!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변호사비용 전액 부담)

새차 리스차 중고차
팩토리(Factory) 워런티를
갖고있는 차

브레이크, 변속기, 엔진, 에어컨, 깨진 유리창,
파손된 후방 카메라, 오일 누수, 냄새, 소리,
타이어, 대시보드(Dashboard) 화면 등
1회 이상 수리한 사실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David Lee 변호사
6940 Beach Blvd. Suite D-606, Buena Park, CA 90621
무료 상담
(213)210-3651
Dlee@proverbs318law.com

기쁜우리교회 8주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가치의 충돌, 성정체성 혼란
교회의 치열한 싸움 가운데
교회가 상실한 한 가지



2월 9일(주일)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가 창립 8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기쁜우리교회 페이스북

"에베소 교회는 많은 것을 잘했다. 그런데, 계속 옳은 것을 외치고 정의를 외치다가 사랑을 상실해 버릴 때가 많다. 요즘 가치의 충돌이 많이 일어난다. 우리 사회에서 성정체성 혼란 때문에, 소수자에 대한 배려 때문에 교회가 너무 편협하고 배타적이라고 질타를 받아 왔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성정체성 혼란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막아야 한다고 외칠 때, 그들에 대한 미움이 싹틀 수 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막아야 하지만, 혐오를 가져서는 안된다. 사실, 그들이 이렇게 정치화 되고 똘똘 뭉치게 된 단초는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몰아냈던 데 있다. 이단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더 옳은 것을 알고 있다'는 영적인 교만으로 인해 사랑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 '복음을 수호해야 하겠다', '진리를 방어해야 하겠다' 하는 가운데 슬그머니 자기의 확신, 자기의 고집, 자기 방어, 자기 수호가 끼어들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실할 수 있다."

글렌데일에 위치한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가 창립 8주년을 맞아 2월 9일(주일) 감사예배를 드리며 지난 8년을 회고하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길 다짐했다.

이날, 허창도 목사 예배의 부름, 정지일 장로 기도에 이어 김경진 목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계 2:1-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에베소 교회가 놓여 있던 역사적 상황을 설명하며,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악한 유혹과 핍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이단들에 대해서도 잘 분별해서 교회의 정통성, 복음의 순수성을 지킨 참 훌륭한 교회라고 칭찬하셨다. 수고하고 애쓴 것을 예수님께서 알아주셨다.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수고스러운 일들이 많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이다"라고 했다.

그는 "에베소는 인구 25만 명의 대도시로, 아데미 신전이 우뚝 서 있었고, 그곳에서 여사제 수천 명이 음행을 벌였으며,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박해했다. 뿐만 아니라 영지주의 이단의 유혹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상실했다'는 책망을 받았다며, 세상의 도전과 가치의 충돌 가운데 교회가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라도 아무 조건 없이 다가오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자격을 부여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저는 주님을 만나면서 그 사랑에 완전히 산산이 깨어지고 박살 났을 때, 그게 40년 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제처럼 기억하고,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눈물이 흘러 내릴 때가 있다. 제가 사랑한 게 아니다. 주께서 저를 먼저 사랑하셨다."

"진리 없는 사랑도 안 된다. 그러나 진리 가운데 나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배려하고 높여주는 그런 사랑을 나눌 때 영생의 열매를 누리게 될 줄 믿는다. 그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할 수 있길 소망한다. 그 사랑을 어디다 떨어뜨렸는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란다. 예수님께서 일곱 촛대 사이를 돌아다니시듯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신다. 다시 한번 그 마음과 사랑의 회복하자."

이날 2부 예배에서는 이효수(은퇴 장로), 최계자, 여미령(은퇴 권사)의 은퇴식이 거행되었다. **주디 한 기자**

남가주 목사 중창단 단원 모집 "찬양에도 바른 신학 필요"

엘에이에 남가주 목사 중창단이 결성돼 주목을 끌고 있다.

현재 5명의 목회자들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벨가든 한인교회(이우호 목사)에서 모여 연습을 하고 있으나, 장소는 엘에이로 변경될 수도 있다. 이들은, 정통 신학과 목회 윤리에 바탕을 둔 찬양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바른 찬양의 홍보 및 계몽으로 기독교인의 올바른 찬양 문화를 선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창단은 오는 3월부터 격주로 찬양과 기도 모임을 가질 예정으로, 찬양과 기도를 통해 회개와 회복, 기쁨과 응답, 치유를 경험하는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한 길거리 전도 찬양(버스킹), 재소자를 위한 전도 찬양, 장애인, 양로원을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회에서의 찬양과 말씀 사역도 준비하고 있다. 중창단은 신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가사의 찬양이 난무한 현 상황에 바른 찬양 및 계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지휘자 이재경 목사(인랜드교회)는 "지금 교회라든지 기독교 관련 성가단에서 성가곡과 찬송가를 부를 때 가사를 잘 알지 못하고 찬양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뉴에이지도 사실 교회 음악같지만 교회 음악을 가장했다. 절대적인 에너지를 뜻하는 뉴에이지가 담겨있는 것"이라면서 "'평화의 기도'의 가사를 보면 자기를 온전히 드림으로 영생을 얻고자 함이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에 빗나가지 않게 가사와 작곡 배경을 보려고 신경쓰고 있다. 물론 우리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찬양을 드릴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검증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바른 찬양 문화를 전파해 나가기 위해 엘에이에 남가주 목사 중창단이 결성되었다. 왼쪽부터 이재경 목사(지휘, 인랜드 교회), 윤태환 목사(베이스, LA나사렛교회), 문재성 목사(베이스, 예수님제일교회). ©기독일보

바른 찬양으로 올바른 찬양 문화 선도
길거리 버스킹, 재소자를 위한 전도 찬양, 양로원 방문 계획

베이스 문재성 목사(예수님제일교회)는 "복음성가 '역전의 하나님'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탄의 대결 구도로 그려놓았는데, 이를 보면 하나님이 몰리고 있다가 역전했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이기 쉬운 오점이 있다"며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단이 있고 하나님은 한번도 역전을 당하신 적이 없다.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마귀 시험을 허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역전시키는 것인데, 제목을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사단의 대결 도구로 보이는 오해가 일어난다"고 했다.

지휘를 맡은 이 목사는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그 국립음악원에서 합창 지휘 석사 박사 학위와, 오케스트라 지휘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현지에서 지휘 활동을 하다가 2005년에 도미해 여러 오케스트라와 목사 장로 부부찬양단을 이끌었으며, 현재 인랜드교회에서 지휘로 섬기고 있다.

모집 단원 자격 요건으로는 △정통 교단에서 안수받은 남성 목회자나 파송된 선교사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특히 동성애 찬성 교단에 속한 목회자 가입 불가 △노래가 아닌 찬양을 하기 원하는 자 △찬양에 달란트가 있거나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자로,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나 선교사에 제한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엘에이 피코와 크랜셔 코너에서 '월드뮤직'을 운영하고 있는 김명화 장로가 후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한다.

베이스 윤태환 목사(LA나사렛교회)를 비롯해 중창단 관계자들은 "찬양에 열정이 있고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 나를 내세우는 퍼포먼스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면 환영한다"면서 "올바른 찬양을 보급해서 전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토마스 맹 기자**

문의: 213-407-2263(윤태환 목사)

교회 안의
남성사역
어렵지요?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My Journey"의 저자 Patrick Morley 목사는
평생 남성사역을 연구해온사역자로서
그의 수많은 저서와 경험을 총정리하여
펴낸 책 My Journey를 통하여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지던 남성 사역과
남성 소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해답을 내어 놓았습니다.
My Journey의 한글판 "내 삶의 여정"
이병일 목사 번역



MIM Korea가 참석자에게 드리는 **특별선물**
고든 맥도날드저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가?**" *등록 선착순 30명 한정

QR코드를 스캔해서 등록 하세요.

남성사역 컨퍼런스
강사 이병일 목사

2025년 3월 24일 (월)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장소: **L.A. 사랑의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Olympic과 Elden
참가비: 무료 / 샘플교재 및 점심제공
주최: Man in the Mirror Korea
대표 이병일 (Bryan Lee) 목사
(213) 435-6009 / bryanleemog@yahoo.com
주관: 기독일보 (213) 434-1170

한빛장로 50주년, "세상에게 예수를 뺏기면 안돼"

공로패, 감사패, 근속패 등 특별 시상식 거행



한빛장로교회(구경모 목사)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2일 주일 감사예배를 드렸다. ⓒ한빛장로교회



한빛장로교회 1대 담임목사인 김상현 목사의 사모, 딸과 손녀가 이날 예배에 함께 했다. 손녀가 헌금송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한빛장로교회

한빛장로교회(구경모 목사)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2일 주일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는 교회 창립 멤버를 비롯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반세기 동안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구경모 목사는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사무엘상 7:12-14)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구 목사는 일반적으로 "에벤에셀" 하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긍정적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에벤에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했던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탐심에 빠졌을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했다"며 "그들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언약궤를 앞세우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 착각했다. 그러나 법궤를 우상화하는 태도는 결국 더 큰 패배를 가져왔고,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신앙에도 적용되는 메시지다"라고 경고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나 신앙의 중심을 놓치고, 믿음을 세상적인 가치와 탐심에 맡길 때 우리는 예수님을 빼앗길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믿음을 흔들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고 말했다.

구 목사는 또한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스스로 돌아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먼저 찾아온다"며,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 간다"고 말했다.

그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이 중요하지만, 은혜 없는 순종은 오히려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우월감을 증명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우리가 은혜로 인해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의 순종이 은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적은 없었는가? 혹은 믿음을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면서 빼앗기지는 않았는가?"라고 자문했다.

마지막으로 구 목사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존재"라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의와 거룩과 영광이 가득해야 한다. 더 이상 예수를 빼앗기지 말고,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배 중에 16명의 성도들에게 공로패, 감사패, 근속패 등 특별 수여했다. 50주년 감사예배를 통해 한빛장로교회는 과거의 역사를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앙의 본질을 점검하며 153 비전을 이루는 더 큰 믿음의 성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셉 리 기자

은혜한인교회 기독영화 감상회

은혜 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문화 사역국, 공동 사역부서, 전도국에서는 기독영화 감상회를 다시 시작한다.

2025년 첫 영화는 〈파파오랑후탄〉2018년 작품)이다. 〈파파오랑후탄〉은 말레이시아에서 20년째 원주민 사역 중인 박철현 선교사의 사역을 담은 영화이다. '오랑후탄'은 사람을 뜻하는 '오랑'과 정글을 의미하는 '후탄'이 합쳐진 말로 원주민들이 박 선교사에게 붙여준 별명이다. 대장암 말기를 선고받고도 힘든 정글 복음화를 이어가고 있는 '오랑후탄' 박철현 선교사의 원주민 사랑 이야기 〈파파 오랑후탄〉은 정글속에서 펴쳐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야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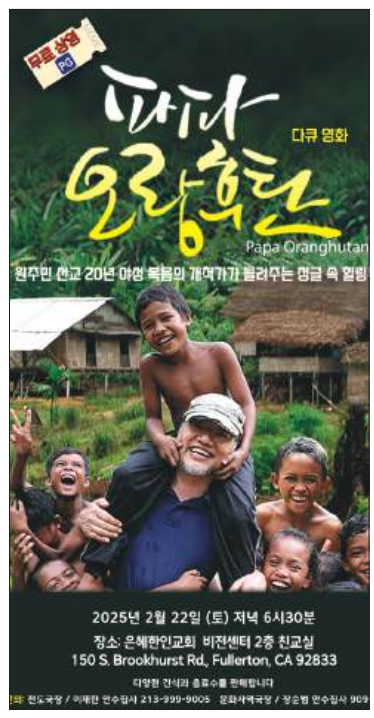
한국에서 안정적인 목회를 하고 있었던 박철현 목사는 어느 날 TV에서 병든 딸을 제물로 바치는 말레이시아 원주민들의 정령신앙을 접하게 된다. 큰 충격을 받은 그는 무작정 말레이시아 정글로 떠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8시간을 걸어서 도착한 우루 깜 바마을. 이곳에는 폭군이자 악마라고 소문난 식인종의 후예 '까심'이 살고 있었다. 그는 사사건건 박철현 선교사의 사역을 방해하고 목숨까지 위협하는 초강수를 두지만 포기를 몰랐던 박철현 선교사는 까심의 눈을 피해 몰래몰래 복음을 전파한다.

박철현 선교사는 말레이시아 정글사역이 "사명이라기 보다는 사랑인것 같다. 난 원주민과 완전히 사랑에 빠졌다"고 말한다.

영화는 무료이며, 각 교회의 단기선교팀들 및 영혼 구원을 하고자 하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열려있다.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볼 수 있는 PG 등급의 가족 영화이다.

매점을 운영하며 각족 음료수와 커피, 다과, 저녁식사 (불고기 덮밥)를 기존 영화관보다 훨씬 저렴한 요금으로 판매한다.

은혜한인교회 기독영화 감상회에서는 2025년도에는 4분기로 나누어서 분기별(4회)로 영화를 상영할 예정이며, 다음 상영날자는 5월말, "Passion of Christ", "십계", "Heaven is for Real", "레미제라블" 등 인기 있었던 영화를 상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선 기자



ⓒ은혜한인교회

일시: 2월 22일(토)저녁 6시30분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2층 친교실
문의: 714-446-6200

➔ 1면 기사 〈 美 복음주의자..〉 에 이어서 라이프웨이 대표이사 스콧 맥코넬은 성명을 통해 "6명 중 1명도 안 되는 복음주의자들은 직계 가족이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거나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서 "이들은 그들이 분리되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 이웃과 가족"이라고 했다.

복음주의자들은 미-멕시코 국경을 따라 불법 이민에 대한 '무관용 정책'이라는 아이디어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는데, 여기에는 부모와 자녀를 분리하는 것도 포함됐다. 응답자의 45%는 그러한 정책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고, 43%는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음주의자 대다수(80%)는 2025년 미국 의회가 주요 이민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중 압도적 다수가 '납세자에게 공정성을 보장하는'(93%), '법치주의를 존중하는'(92%), '국경의 안전을 보장하는'(90%)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응답자의 90%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여한 존엄성을 존중하는' 이민법과 '직계 가족의 연합을 보호하는' 이민법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응답자 74%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길을 마련하는'이민법을 보고 싶어했다.

응답자 중 76%는 국경 보안 강화와 불법 이민자에게 시민권 취득 경로를 모두 포함하는 법안을 선호했고, 81%는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어린 시절에 불법으로 미국에 온 불법 이민자 그룹에게 시민권 취득 경로를 확립하려는 법안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센터메디컬클리닉에서
함께할 주치의를 모십니다.
송홍우
센터메디컬클리닉 로렌하이츠점
(626) 363-4661
조이스 리
센터메디컬클리닉 플러튼점
(714) 519-3024
임유일
센터메디컬클리닉 가든그로브점
(714) 583-8569
김민성
김민성 내과
(213) 487-4141
(310) 710-7002
김남주
김남주NP 클리닉
(714) 695-2388
박 항
박항 내과
(213) 382-3663
성동진
성동진 내과
(424) 551-3110
김인자
김인자 내과/안과
(714) 562-5857
안우성
안우성 내과
(562) 916-5020
박윤석
박윤석 메디컬클리닉
(562) 809-8082
황인용
황인용 심장내과
(714) 760-9988
(213) 528-1111
박수영
박수영 내과
(714) 523-3212
단 손
단손 메디컬센터
(714) 527-2240
김학준
김학준 병원
(310) 324-4443
김영래
김영래 관절내과
(714) 594-6962
강신욱
강신욱 내과
(213) 380-7077
박성수
박성수 내과
(818) 678-9875
방재훈
방재훈 신장내과
(714) 534-3366
임대순
바른병원
(213) 985-7777
잔 음
은혜병원
(562) 865-3738
신창은
신창은 내과
(714) 577-2340
프랭크 최
최선 가정병원
(213) 277-5723
이익준
동부병원
(626) 913-8010
당신의 건강, 우리의 약속
당신의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설계합니다.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센터메디컬그룹
(888) 847 - 3098

KWMA 제35차 정기총회 개최... 강대흥 사무총장 연임

신임 법인 이사장 주승중 목사, 법인 부이사장 이재훈 목사
총회 회장 황성주 목사, 운영 이사장 황덕영 목사 선임



KWMA 제35차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10일 정기총회를 열고 사무총장 강대흥 목사의 연임을 결정했다. 또 KWMA 신임 법인 이사장에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 신임 법인 부이사장에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신임 총회 회장에 황성주 목사(국제사랑의봉사단), 신임 운영 이사장에 황덕영 목사(새중앙교회)가 선임됐다.

이날 인천 부평 주안장로교회 지하 2층 글로리아홀에서 열린 KWMA 제35차 정기총회 1부 개회예배는 운영이사회 이사장 여주봉 목사(포도나무교회)의 사회로 법인 부이사장 황성주 목사의 대표기도 후 법인 이사장 이규현 목사의 설교, 법인 이사 조봉희 목사(지구촌교회 서울 원로목사)의 축도로 드려졌다.

이규현 목사는 요나서 4장 10~11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우리 자신을 계속 점검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신실하게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법인이사회 이사들이 참석자들에게 인사하며 새해 상견례를 한 이후 2부 회무처리는 회장 주승중 목사의 사회로 시작됐다. 이규현 목사는 인사말에서 "선교에 관심이 많은 우리 교회(수영로교회)가 선교와 관련된 부분에 여전히 책임감을 가지고 하려 한다"며 "앞으로도 여전히 한국교회의 선교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뒤에서 섬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총회는 재적 인원 206명 중 과반인 140명(84명 참석, 56명 위임)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자가 개회 선언을 했으며, 회순 채택, 서기 주영찬 목사(HOPE선교회)의 전회의록 낭독, 2024년 영상 사업 보고, 감사 강재욱 장로의 2024년 감사보고, 회계 이선복 교수의 회계보고 등을 서면으로 받았다.

이어 총회원들은 2025년 법인이사회, 총회, 운영이사회, 정책위원회, 행정본부 조직안을 승인했다. 이에 2024년 11월 11일 법인이사회에서 선출된 차기 법인 이사장 주승중 목사, 차기 부이사장 이재훈 목사, 차기 서기 이여백 목사(주사랑선교교회)가 승인되고, 신화석 목사(안디옥성결교회)가 법인 이사에서 사임했다. 또 2024년 10월 11일 운영이사회에서 선출된 차기 이사장 황덕영 목사, 부이사장 고성준 목사(수원하나교회), 서기 조지훈 목사(기쁨이있는교회)가 선임되고, 길요나 목사(왕성교회),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 박진석 목사(포항기쁨의교회), 진용식 목사(상록교회)가 신임 운영이사로 선임됐다.

차기 사무총장 선임은 법인이사회가 최종 후보로 추천한 강대흥 현 사무총장에 대한 무기명 찬반 투표로 진행됐다. 주승중 목사는 "처음 법인이사회에서 현 사무총장의 위임을 결정했는데, 정책위원회에서 '그래도 오픈해서 모두에게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법인이사회에서 받아들여 다시 오픈했다"며 "두 분이 (후보로) 올라왔는데, 지난주 중 법인이사회에서 의논 끝에 한 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KWMA를 합하고 아우르는 데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현 사무총장을 최종 후보로 결의하고 총회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는 총 87표 가운데 찬성 72표, 반대 13표, 기권 2표가 나와, 유효투표의 과반수로 강대흥 현 사무총장이 4년 임기의 사무총장으로 재선출됐다. 신임 회원단체로는 블레싱 재팬(대표 윤성혜 목사), 실크로드선교회(대표 박성진 목사), FGMI 미래세대선교회(김언약 선교사)가 인사하고, 특별선교회원으로 세계선교보고(대표 김재환 안수집사), 한국외항선교회(대표 전철한 목사) 등이 인사했다.

2025년 예산안 보고에서 강대흥 사무총장은 2024년 총예산 7억 8천만 원을 2025년에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보고대로 받기로 했다. 이어 신임 총회 회장 황성주 목사의 사회로 기타토의가 진행됐고, 공로패·감사패 표창 시간에 공로패를 신화석 목사(안디옥성결교회 원로목사), 신동우 목사(산돌중앙교회 원로목사),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에 전달했다. 감사패는 총회 준비 및 협력에 기여한 주안장로교회, KWMA 정책위원으로 6년간 섬긴 김장생 선교사(한국대학생선교회·CCC), 손귀연 목사(예수제자운동·JDM), 주영찬 선교사(전문인협력기구·HOPE), 2024년 제22회 한국선교지도자포럼(한선지포) 프로그램 커미티로 섬긴 이민기 목사(평택쉼터교회, 평택이주민선교연합회), 양회성 선교사(디아스포라 미디어)에 전달했다. 이후 이규현 목사의 폐회기도와 신임 법인 이사장, 법인 부이사장, 총회 회장, 사무총장에 꽃다발 증정 및 기념사진 촬영, 단체사진 촬영 후 점심 교제를 나누며 일정을 마쳤다.

이지희 기자

미식축구 슈퍼볼 우승팀 MVP "선하신 하나님"



젤런 허츠 선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모든 경험에서 배움을 얻고, 이를 원동력 삼아 발전해왔다"고 하며 팀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미식 축구팀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슈퍼볼 LIX에서 캔자스시티 치프스를 40-22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고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팀을 이끈 쿼터백인 젤런 허츠 선수는 슈퍼볼 MVP로 선정되며 활약을 인정받았다.

경기 후 허츠 선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모든 경험에서 배움을 얻고, 이를 원동력 삼아 발전해왔다"고 신앙을 드러내며 팀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허츠 선수는 "수비가 챔피언십을 결정짓는다. 수비진이 경기의 흐름을 바꿔놓았다"고 평가했다. CP는 지난해 슈퍼볼 LVII에서 치프스에 패했던 허츠 선수가 이번 승리로 설욕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항상 의심과 비판을 동기부여로 삼아왔다. 이번 우승도 그러한 과정의 일부였다"고 말했다.

최승연 기자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효,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서울메디칼그룹이
No.1 인 이유는
늘 따듯한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온
오늘의 당신 덕분입니다

더 많은 사랑으로
더 건강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마약 청정국 아닌 한국… 교회도 그 심각성 인식해야”

목회데이터연구소, 마약 관련 통계 소개

한국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만큼 한국교회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독자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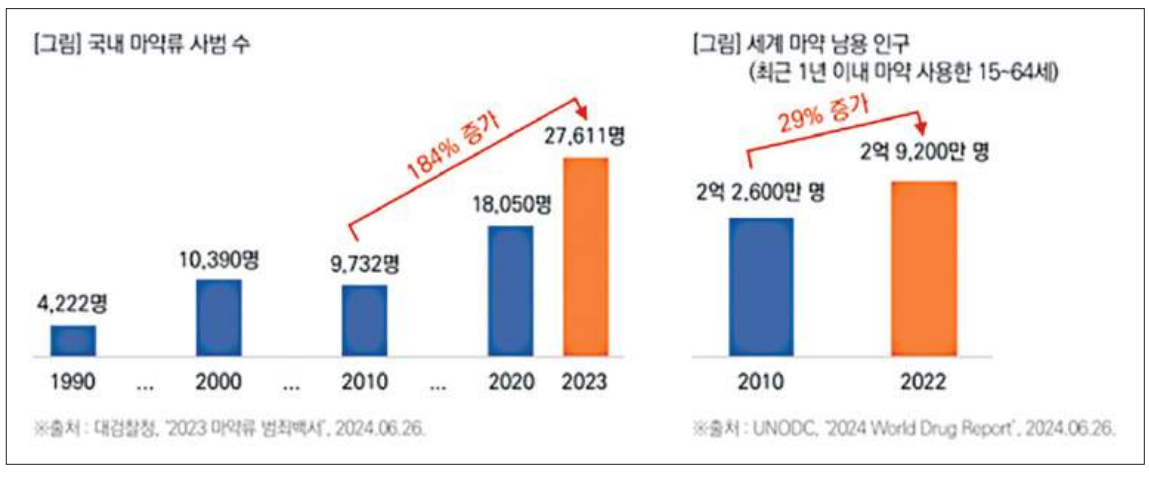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는 11일 마약과 관련된 일반사회 통계를 소개하면서 이 같이 요청했다. 목데연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서 교회출석자 중 마약을 포함, 중독자 비율이 11%에 달하고 있다”며 “교인들 사이에서 중독자들이 스스로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따뜻한 공동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목데연이 이날 소개한 각종 통계들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마약사범은 총 27,611명으로 2010년 대비 184% 증가했다. 한국의 마약 추세가 세계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2023년 마약사범의 비중을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3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대(24%), 40대(14%) 순이었다.

10~20대의 비율이 35%로 3명 중 1명 이상, 20~30대 비율은 54%로 절반 이상이었다는 것이다. 10~20대 마약사범의 비중은 최근 4년 사이 24%에서 35%로 크게 증가했다고 목데연은 전했다. 또 온라인 마약 불법유통 적발 건수는 2022년 9,269건으로 4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무려 84%의 청소년이 마음만 먹으면 마약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최근 한국리서치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0명 중 9명(89%)은 현재 한국 사회의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2년 전 조사 대비 13%p 증가했다고 목데연은 전했다. 또한 현재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응답은 87%, ‘마약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86%로 나타났는데 2년 전 대비 각각 8~9%p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목데연은 “전반적으로 국내 마약 문제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인식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마약 문제 개선방안으로는 ‘단속 강화(93%)’와 ‘처벌 및 형량 강화(92%)’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전반적으로 ‘예방’, ‘재활/치료’보다 ‘처벌/단속’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목데연은 “심각한 마약 문제는 이제 한국교회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현재 많은 교회에서 중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먼저 목회자들은 마약을 포함, ‘중독’ 전반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마약의 위험성과 중독의 심각성을 교회 내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명확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정신적 공허감과 외로움으로 인해 마약 또는 중독에 빠지는 이들을 위한 상담과 돌봄 사역도 중요하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中, 6년 이상 수감됐던 선샤오춘 목사 석방

한국순교자의소리(이하 한국 VOM)는 최근 “미얀마에서 중국으로의 불법 국경 횡단을 조직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선샤오춘(Shen Shaochun) 목사가 6년 3개월을 복역한 뒤, 2024년 말 윈난성 시솽반나 교도소에서 석방됐다”고 전했다.

한국 VOM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선 목사에게 편지를 쓰도록 독려해 왔다. 이를 통해 그가 지속적으로 용기를 얻도록 하는 한편, 교도소 관계자들에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한국 VOM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에 따르면, 선 목사의 아내와 아들 부부와 손자가 9개월 일찍 석방된 그를 맞이하기 위해 교도소를 방문했고, 그는 난징에 있는 자택으로 안전하게 돌아왔다. 현숙 폴리 대표는 “선 목사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조기 석방이 특히 더운 반가운 소식이었다.

작년 4월 한국 VOM을 비롯한 국제단체들은 선 목사의 건강 악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고혈압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매일 혈압약을 복용해야 하고, 치아 통증도 자주 느낀다. 또 그는 2018년에 수감되기 전 왼쪽 눈에 질환이 있었다. 사역 일정이 너무 바빠 치료를 미룬 그는, 나중에 왼쪽 눈이 완전히 실명돼 오른쪽 눈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선 목사는 수감된 뒤에 특히 눈에 큰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오른쪽 눈의 시력도 현저히 저하됐다”고 했다.



중국 윈난성

현숙 폴리 대표는 “다행히 석방 당일 찍은 사진을 보면 그의 건강 상태가 좋아 보인다”며 “작년 7월, 선 목사의 아버지가 8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분은 아들이 감옥에서 석방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무척이나 안타까워했다. 선 목사의 어머니는 현재 79세”라고 전했다.

선샤오춘 목사는 1966년 화이위안현에서 4개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선 목사는 1990년대 초 신학교를 졸업한 뒤에 농장에서 시간제로 일했고, 현지 신학교에서도 시간제로 봉사했다. 2018년, 신학생 4명이 미얀마 경찰에 체포돼 중국 경찰에 인계됐고, 그 사건을 조사하던 중국 경찰은 그들이 선 목사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선 목사는 2018년 9월 30일 체포됐고, 나중에 법정에 서게 됐다.

현숙 폴리 대표는 “법정에서 선 목사는 그 신학생들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 그 학생들이 석방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는 유죄를 완전히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들였고, 다른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도록 조직했다는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선 목사는 2025년 9월에 석방될 예정이었다.

현숙 폴리 대표는 “기독교인 수감자가 투옥돼 있을 때보다 석방된 후 기도가 더 필요한 경우가 많다. 믿음 때문에 수감됐다가 석방된 성도들은 감옥에 있는 동안 주님께서 매우 가까이 계신다고 느끼지만, 석방된 후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따르는 모든 어려움, 특히 당국자들의 면밀한 감시로 인한 압박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선 목사는 건강을 회복하고 사모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의 가족은 매일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일상을 새롭게 일궈 나가야 한다. 우리는 가족들이 주님의 위로와 강하고 안전한 임재를 경험하고 앞으로 주님을 섬길 방법을 알게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며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이어 “기독교인들이 믿음 때문에 투옥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사역을 종종 소홀히 여길 때가 많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선 목사와 같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분들을 격려하는 편지를 쓰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른다. 과거 믿음 때문에 수감돼 있다가 석방된 성도들은 자신들이 수감돼 있는 동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보낸 편지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됐는지 자주 간증한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나이지리아 UMC 신임 감독 '분열 극복' 의지 피력



2024년 12월 나이지리아 연합감리교회 서아프리카 중부연회 감독으로 선출된 안데 에마누엘(왼쪽). ⓒUM 뉴스

이전 리더십 이탈에 따른 과제 해결 강조

파나이지리아 연합감리교회(The United Methodist Church in Nigeria, 이하 UMCN)가 과거의 분열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2024년 12월 서아프리카 중부연회 감독으로 선출된 안데 에마누엘(Ande Emmanuel)는 "전직 지도자들의 이탈에 따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나이지리아의 모든 감리교인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목표로 5개 연회에서 25차례 공청회 및 회의를 가졌다"고 했다.

에마누엘 감독은 "이 세션의 목적은 회원들 간 단결을 추구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기를 바라는지 듣는 것이다. 교회는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흔들림없이 번영하고 있다"고 했다.

UMCN 사무총장인 유니스 무사 일리야(Eunice Musa Iliya) 목사는 CDI와의 인터뷰에서 "교단이 리더십과 권력 다툼으로 23년 이상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논란 속에 사임한 존 웨슬리 요한나(Johnwesley Yohanna) 전 감독이 내린 결정에 교회 분열의 원인이 있다. 요안나 감독은 앞서 2024년 8월 은퇴를 앞두고 몇 달간 논란을 빚었다. 그와 UMCN의 일부 전직 지도자들은 등록된 UMCN의 이름을 나이지리아 글로벌감리교회(이하 GMCN)로 변경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다.

일리야 목사는 "가장 슬픈 점은 전직 요한나 감독과 그의 충성파가 교회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명칭을 바꾼 후 모든 UMCN 재산을 GMCN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그들은 UMCN 자금, 모든 직원과 목사의 연금, UMCN 은행 계좌, UMCN 본부를 가지고 떠났다. 그리고 간판을 글로벌감리교회로 바꿨다"고 했다.

일리야 목사는 또한 성소수자 공동체에 대한 지원과 동성결혼 수용에 대한 비판에 대응해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정보"라며 "UMCN은 교리적으로 복음주의적이며, 동성애를 받아들이거나 승인 또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 UMCN은 나이지리아 헌법, 신학 및 문화에 규정된 대로 결혼은 오로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이뤄진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앞서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열린 2024년 교단 총회를 언급하며 "교단 내 각 지역에는 해당 지역의 법, 문화, 신학에 따라 신학, 정책, 행정을 맥락화할 수 있는 자율권이 있다"고 밝혔다.

UMCN는 2024년 12월 17일, 명칭 변경을 무효화하고 자산·재산 및 계정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첫 심리는 2025년 3월 3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GMCN은 성명을 내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UMCN는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코트디부아르 교구와 함께 서아프리카 중부연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남부 나이지리아, 중부 나이지리아, 북동부 나이지리아, 북부 나이지리아, 남부 컨퍼런스로 불리는 5개 연회가 소속돼 있다.

강혜진 기자

EU, 파키스탄 '신성모독법' 등 인권 언급하며 무역 특혜 철회 경고



▲유럽연합 깃발. ⓒPixabay/Greg Montani

유럽연합(EU) 대표단은 1월 31일(이하 현지시각) 파키스탄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신성모독법, 소수 민족 소녀의 강제 결혼·개종,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 이슈 등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특혜 무역 지위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로프 스쿠그(OLOF SKOOG)가 이끄는 EU 대표단은 기자회견에서 "파키스탄이 일반특혜관세제도 플러스(이하 GSP+) 지위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면서 "파키스탄의 무역 혜택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에 대한 우려 해결에 진전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했다.

EU 대표단은 "현재 모니터링 주기의 중간 평가가 다가오면서, 파키스탄이 새로운 GSP+ 규정에 따라 재신청을 준비하면서 개혁을 계속할 것을 권장한다. GSP+에 따른 무역 혜택은 인권을 포함한 여러 이슈 해결의 진전에 달려 있으며, 실질적인 개혁은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파키스탄은 남아시아 지역에서 EU의 주요 파트너로 남아 있으며, EU와의 관계는 유엔 헌장의 원칙과 국제 규범을 준수해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구축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EU는 파키스탄이 GSP+의 가장 큰 수혜국이 됐다는 사실을 환영한다. 파키스탄 기업들은 2014년 이 무역 제도가 출범한 이래 EU 시장으로의 수출을 108% 늘렸다"고 했다.

EU는 파키스탄의 두 번째 큰 무역 파트너이며, 파키스탄은 GSP+ 지위를 통해 유럽 수출품에 대한 무관세 또는 최소 관세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수혜국이 인권 및 노동권, 환경 보호, 기후 변화 및 선의의 국정 운영에 대한 27개 국제 협약 이행에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야 한다.

강혜진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차세대예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새벽예배 (월)온라인 Only 오전 6시 (화~토) - 오전 6: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청소년예배 오전 10:5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토요비젼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본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1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MC 중고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본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11시
새벽기도회 오전 6시(금, 토)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E.M(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일 오전 10:00 하톤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진건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11:00
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전 9:3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GRC(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2부예배 9:30am
주일3부예배 11:15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일EM예배 11:00am
수요찬양집회 7:30p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r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밸가든구국재단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15
한어부 오후 1: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20
2부예배 오전 09:10
3부예배 오전 11:2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주일예배 3부 오전11:30
(청장년/교육부서)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9:4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우영화 담임목사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트럼프, 백악관 내 '신앙 사무소' 신설



트럼프, 백악관 내 '신앙 사무소' 신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내에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반기독교에 대응하는 '신앙실(Faith Office, 또는 신앙 사무소)'을 설치했다.

트럼프는 지난 7일 '백악관 신앙실 설립(Establishment of The White House Faith Office)'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따라, 가정을 강화하고 일과 자기충족을 촉진하며, 종교 자유를 보호하는 종교 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후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받는 자리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성경 말씀과 같이, 대통령직을 마무리했을 때, 제 가장 위대한 업적(my greatest legacy)이 '화평케 하고 하나 되게 한 사람(peacemaker and a unifier)'으로 평가받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선거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해 귀를 다쳤던 경험도 언급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이 제 안에 무엇인가를 바꿨다고 생각한다"며 "더 강해졌다고 느낀다. 과거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지금은 더욱 강하게 느낀다"고 고백했다. 이에 빌리그래함전도협회 대표인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Franklin Graham)는 페이스북에서 해당 소식을 공유하면서 "신앙실을 설립해 주신 트럼프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며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통령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제게 큰 특권이었다"고 전했다.

행정명령 제1조에서는 "신앙 기반 단체와 지역사회 조직, 그리고 예배 장소(faith-based entities, community organizations, and houses of worship)는 정부와 다른 방식으로 개인과 가족 및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러한 곳들은 종종 연방정부보다 더 큰 역량과 효과성을 지니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가정을 강하게 유지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이들이 보조금, 계약, 프로그램 및 기타 연방 자금 지원 기회를 놓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한다"며 "연방정부는 이들 조직과 혁신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결과 중심적 계획을 통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한다. 행정부는 모든 부서 및 기관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준수하며, 어떤 형태의 종교 차별도 종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실(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내에 '신앙실(Faith Office)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 사무소는 행정부 내에서 종교 기관들이 가정과 지역사회를 지원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무소는 국내정책위원회(Domestic Policy Council)에 소속되며, 수석고문이 사무소를 이끌며, 대통령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직책도 임명한다.

신앙실 특임 정무직 공무원(Special Government Employee) 및 수석고문(Senior Advisor)으로는 폴라 화이트 목사(Paula White-Cain)를 임명했다. 폴라 화이트 목사는 트럼프 1기 당시 백악관 신앙 및 기회 이니셔티브(Faith and Opportunity Initiative) 고문이자 복음주의자문위원회(Evangelical Advisory Board) 의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백악관은 폴라 신임 고문에 대해 "지난 40년 동안 사역하면서 종교 자유와 인도주의 권리를 위해 노력했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을 옹호하면서 전 세계 200여 개 국에서 영향력을 확대했다"며 "그녀는 폴라화이트미니스트리(Paula White Ministries)와 국가신앙자문이사회(National Faith Advisory Board)의 창립자이자 회장이고, 시티데스티니(City Destiny) 대표이자 플로리다 스토리라이프처치(StoryLife Church) 목사"라고 소개했다. 또 국가신앙자문위 수석 고문을 지낸 제니퍼 S. 콘(Jennifer S. Korn)을 부보좌관 겸 신앙국장(Deputy Assistant to the President and Faith Director)으로 임명했다.

김진영 기자

아프리카 최초 '국제 종교 자유 정상회담' 케냐 나이로비서 열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오는 6월 16일(이하 현지시간) 아프리카 최초의 '국제 종교 자유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케냐의 마르타 쿠메 대법원장은 2월 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 종교 자유 정상회담에서 관련 회의를 열고 "아프리카 전역에서 종교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 온 법조계 인사와 단체가 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쿠메 판사는 "아프리카 전역에 변화를 가져 올 신앙의 연합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표단을 정상회의에 초대했다. 아프리카 전역의 사법부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대륙 전역에 효율성과 효과적인 사법 접근성을 가져오기로 약속했다"면서 "지금까지 14개국이 이 운동에 참여했으며 우리는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2025년까지 많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 종교 자유 정상회담은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2일간의 연례 오프라인 행사에 전 세계 종교 자유를 지지하는 90개 이상의 협력 국가를 모집 중이다. 샘 브라운백 전 미국 국제 종교 자유 대사는 "아프리카의 상황이 절박하지만 희망의 근거도 있다"며 "나이지리아, 이집트, 케냐 등지에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 준비돼 있고, (종교 자유를) 열망하는 수많은 파트너를 현장에 두고 있다. 국제 종교 자유 정상회담의 영향력이 이런 식으로 확대되는 것을 보고 기쁘다"고 전했다.

워싱턴 D.C. 정상회담 아프리카 특별 세션인 '아프리카에 대한 주목: 글로벌 정의와 종교의 자유 이니셔티브'에서 패널들은 아프리카의 종교적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했다. 페퍼다인 글로벌정의연구소 캐머런 맥캘럼 소장은 "종교적 자유를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인 아프리카 사법제도의 개혁 노력이 2010년 우간다에서 시범 프로그램으로 시작됐다가 불과 몇 년 만에 14개국으로 확산됐다"며 "우리는 아프리카 대륙의 절반에 가까운 약 22개국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프리카 여러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신앙 때문에 계속해서 살해당하고, 이주당하고, 투옥되고 있다. 오픈도어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에 나이지리아에서 3,100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당했다. 콩고민주공화국,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니제르와 같은 나라에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기독교인에게 가장 위험한 10곳 중 8곳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다..

이미경 기자

미 상원, 국제 종교 자유 결의안 발의… 북한 종교 탄압 강력 비판

미국 상원에서 국제 종교 자유를 지지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벌어지는 종교 탄압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종교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미국의 외교적 입장을 강조했다.

공화당의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은 전 세계 종교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7일 의회 기록에 따르면, 지난 4일 발의된 이번 결의안에는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의원과 팀 케인 의원, 공화당의 탐 틸리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종교 자유를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 요소로 규정하며,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종교적 박해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의 종교 탄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알려진 국가 이념에 반하는 모든 종교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시하며, 북한 내 종교 자유가 철저히 억압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결의안은 종교 자유를 기본적인 인권으로 규정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지하고 세계 안정과 평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폭력과 투옥을 통한 종교 탄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결의안은 "종교 자유는 기본적 인권이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지하고 세계 안정과 평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종교적 탄압과 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억압하려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결의안은 미 국무부에 국제종교자유법과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법을 적극 활용하여 종교 탄압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외교적 조치와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해 1월 북한을 포함한 12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 해당 목록에는 중국, 쿠바, 에리트리아, 이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포함됐으며, 북한은 2001년 이후 23년 연속으로 이 명단에 올랐다. 또한, 미 국무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2023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도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국가이며, 종교 활동을 이유로 주민들이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은혜 기자

CCM 가수 러스 태프, 새 앨범에 신앙과 중독 극복의 여정 담다



CCM 가수 러스 태프 ⓒ Soft White Underbelly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CCM 가수인 러스 태프(Russ Taff)가 신앙과 중독 극복의 여정을 담은 새 앨범 를 발매했다고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여섯 차례 그래미상을 수상하고, GMA(가스펠 음악 협회) 명예의 전당에 세 차례 오른 태프는 이번 앨범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신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조명한다. CP는 태프가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다. 오순절 교회의 목사였던 아버지가 술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며 어린 시절 큰 상처를 입었다. 그는 결국 같은 길을 걷게 되었고, 음악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중독과 싸워야 했다.

태프는 "7살 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취한 모습을 보았고, 13살 때는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교회 공동체가 저희 가족을 떠난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그때부터 저는 정죄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라며 CP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CP는 태프가 공연장에서 수천 명의 관객을 사로잡았지만, 내면의 고통은 더욱 깊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공연하는 법,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법은 알고 있었지만, 결국 내 힘이 다 소진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말했다. 현재 태프는 18년째 금주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적 신앙고백 담은 Cover Story

CP는 태프의 새 앨범인 'Cover Story'는 그의 삶을 돌아보는 깊이 있는 작품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앨범은 원래 계획된 앨범이 아니었으나, 두 사람의 권유로 시작됐다고 태프는 밝혔다. 그는 " 원래 앨범을 만들 생각이 없었다. 테네시에서 한 달에 몇 번 공연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찾아와 ' 이제 당신이 새로운 앨범을 낼 때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할 이야기가 많아요'라고 말함으로서 이 앨범을 만들게 되었다." 라고 말했다. 앨범에는 밥 딜런(Bob Dylan), U2, 프린스(Prince), 사이먼 & 가펑클(Simon & Garfunkel), 더 내셔널(The National), 디페쉬 모드(Depeche Mode) 등의 곡이 수록됐다. 특히 The National의 'Demons'는 태프의 중독 경험과 맞닿아 있어 강한 울림을 준다.

태프는 "Demons라는 곡을 처음 들었을 때 눈물이 쏟아졌다. 중독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이제 내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껴봤기에 이 노래는 저에게 너무나 강렬하게 다가왔다." 라고 밝혔다. CP는 해당 앨범을 제작에 참여한 프로듀서 스티브 테일러(Steve Taylor)와 존 마크 페인터(John Mark Painter)는 태프가 익숙한 녹음 방식을 벗어나 더욱 진솔한 감정을 담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태프는 "처음 녹음한 후 다시 부를 생각이었다. 그런데 프로듀서들이 처음 녹음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너무 날것 같아서 불편했지만, 그게 더 진솔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믿음은 매일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

태프는 기독교 음악 산업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수많은 동료 음악인들이 신앙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 깨달았다" 며 "기독교 아티스트로 사는 건 정말 힘들다. 계속해서 여행하고, 공연하고, 지쳐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공동체 속에서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점점 미끄러지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영적 무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프는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나아가든가, 뒤로 미끄러지든가 둘 중 하나다. 사탄은 우리가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를 목표로 삼을 것." 이라고 말했다.

최승연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철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 1부 07:30AM - 2부 09:15AM - 3부 11:00AM
EM 주일예배 - 1부 09:00AM - 2부 11:00AM
새벽예배 - 평일(월-금) 05:00AM - 토요 예배 06: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Youth (6th ~ 12th)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KM) 오전 10:30 중,고등부(Youth) 오전 10:30
주일예배(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College) 오전 10:30
유년부(K-2) 오전 10:3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2:40
초등부(3-5) 오전 10: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가페홀)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어부예배(믿음채플)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어노인팅예배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Newhall, CA 91321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밸리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1: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818)363-5887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패니쉬)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오전11:00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토요새벽예배 오전 7:00 E. lvkc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낮예배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joeun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바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준님미디어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찹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NATURE'S TREASURE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기억력 개선
피로 회복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5 목 넘김이 쉬운
비타민 D3 5,000 IU
120 배지터블 캡슐 $8.80
D3 5,000 IU 선사인 비타민!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베지터블 캡슐 $11.99
당신의 건강과 뷰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본부터 끌어올려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한인의사협회의 조용한 나눔과 연대

"시니어센터, LA한인타운에서 중요한 기관으로 성장"



설날 잔치가 열린 1월 28일, 한인의사협회가 지난 해 송년모임에서 모금된 기금 2만 달러를 시니어센터에 전달했다. ⓒksccla

한인의사협회(KAMA) 남가주지회(회장 폴장, The Koran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이하 의사협회)의 작은 미담이 뒤늦게 알려지며 연초 강풍과 산불로 어려웠던 한인타운을 따뜻하게 해 주고 있다.

의사협회는 1월 28일 시니어센터에서 열린 2025 설날잔치가 마무리될 무렵, 박태호 박사(의사협 전 회장)를 통해 기금 2만 달러를 시니어센터에 전달했다. 이 기금은 지난 해 12월 7일 OC 세리토스 쉐라톤호텔서 열린 '의사협회 송년모임'에서 참가자 모두가 시니어센터를 위해 모금한 것이다.

폴장 회장은 "시니어센터는 LA 한인타운에서 중요한 기관으로 성장하고 있다. 제공하는 프로그램들도 노인들 눈높이에 맞춰 정신과 육체 건강에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호 박사는 "이제는 모든 이가 관심을 가지고 시니어센터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신 이사장은 "송년모임에 참가한 의사들이 시니어센터를 위해 한 마음으로 모아 준 성금은 그 어느 것보다 귀하다"면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박태호 박사는 지난 2023년 말 개인이 시니어센터 발전기금 1만 달러를 전달한 바 있다. 또, 임영빈 내과의도 이번 기금모금을 위해 많은 힘을 보탰다. 김민선 기자

더 브릿지 콘서트

2/19(수) 7:30 오렌지한인교회
2/21(금) 7:30 OC제일장로교회

'더 브릿지 콘서트, J+' 공연이 2월 19일(수) 저녁 7:30 오렌지한인교회(담임 정유성 목사) 본당과 2월 21(금)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담임 김종규 목사)에서 열린다.

'J+'는 일본 복음화의 비전을 품은 '더 브릿지 미니스트리'와 언제나 마지막처럼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Cfive 워십'의 연합사역으로, '더 브릿지 콘서트, J+'는 나라와 인종, 문화, 세대를 넘어 하나님 안의 하나됨을 꿈꾸는 크리스천 문화 콘서트로 기획되었다.

이번 콘서트에는 섹소폰 연주자 박광식 선교사, 건반 연주자 공민 선교사, C5 미니스트리를 섬겼던 김대현 목사(예배인도), 일본인 연주자 및 다국적 연합 예배 사역팀이 함께 한다. 김민선 기자

콘서트 일시 및 장소
2/19(수) 7:30 pm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 Fullerton, CA 92832)
2/21(금) 7:30 pm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공연문의: 425-389-7621
이메일: cfivem@gmail.com
카톡: kdh0693



2월 19일(수), 2월 21일(금) 더 브릿지 콘서트가 오렌지 한인교회와 OC제일장로교회에서 열린다. ⓒThe Bridge, Cfive Worship

선교사 자녀 대상 예술 공모전

'가온의 빛' 프로젝트 "소망의 빛을 담다"

선교사 자녀들의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가온의 빛' 프로젝트 H.O.P.E. 미술 공모전이 2월 10일부터 3월 25일까지 열린다. 이번 공모전은 가온갤러리가 주최하고 미주복음방송이 주관하며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자녀들에게 예술을 통한 소망과 비전을 심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모의 주제는 '소망의 빛을 담다'이며, 참가 대상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선교사의 자녀이다. 출품분야는 회화, 일러스트, 디지털 아트 등이며, 총 상금은 $10,000이다. 수상작은 가온갤러리 및 다양한 플랫폼에서 전시된다.

참가자는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작품을 안전하게 포장해 지정된 주소로 발송하면 된다. 제출 시 작품명, 작가 이름, 연령, 3-5줄의 간단한 작품 설명을 동봉해야 하며, 제출된 작품은 반환되지 않는다. 모든 출품작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저작권 침해가 확인될 경우 심사 및 시상이 취소될 수 있다.

'가온의 빛' 프로젝트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가온갤러리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교자녀들이 예술을 매개로 자신의 정체성과 비전을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ALPHA MENTORING과 Beverly Hills의 Scott & Jae Gallery의 현찬으로 진행되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이 선정된다. 작품 제출 마감일은 3월 25일이다. 김민선 기자



문의: gaonartgallery@gmail.com
작품 제출 주소: 6186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참가신청: https://forms.gle/RJEAwLo8EN3TEnAVA

베델교회 봄 부흥회 '그리스도인의 행복'



2/14(금)–16(주일) 류인현 목사 초청

베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가 2월 14일(금)부터 2월 16일(주일)까지 류인현 목사(뉴욕 뉴프론티어교회 담임)를 초청해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주제로 2025년 봄 부흥회를 연다. 일정은 14일(금) 저녁 7:30, 15일(토) 오전 6:00, 저녁 7:00, 16일(주일) 1-3부 주일예배이다.

[사설]
트럼프 2기, 복음정신 회복의 원년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 백악관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트랜스젠더)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달 20일 미 대통령 취임사에서 "성별은 남성과 여성 2개뿐"이라고 한 선언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풀이된다.

이날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 배제'(Keeping Men Out of Women's Sport)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으로 여성 스포츠에 대한 전쟁이 끝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제부터 여성 스포츠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라고 선언하자 이 자리에 함께한 다양한 연령의 여성 선수들이 환호를 보냈다.

이번 행정명령에서 주목할 부분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여성 스포츠 참가 기준을 생물학적 성별로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파리 올림픽에서 남성 선수가 여성 선수에게 폭행을 가해 46초 만에 기권하게 만들고 성 전환한 두 명이 금메달을 땄다"라며 66kg급 복싱 금메달리스트 칼리프 이마네와 57kg급 금메달리스트 린위팅의 사례를 직접 언급했다.

당시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물론 CNN 등 미국 내 주류 언론들까지 두 선수의 여성 복싱경기 출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도했었다. 그러나 2023년 국제복싱연맹(IBA)이 주최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두 선수가 'XY 염색체' 보유 문제로 실격당한 전력이 있어 이런 주장에 의구심이 든다.

미국 내에선 2022년 전미 대학 수영대회에서 트랜스젠더 선수인 리아 토머스가 여성부 자유형 500야드 경기에서 우승하면서, 공정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과거 남자 대회에서 400위권에 머물렀던 선수가 여성으로 성 전환 후 우승을 차지하면서 트렌스젠더의 여성부 경기 출전에 대한 논쟁을 격화시켰다.

그런 배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두 가지 커다란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다. 첫 째는 말 그대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트렌스젠더는 여성 스포츠팀과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는 연방 정부 차원의 행정 조치다. 그동안 학교 스포츠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방기돼 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선수를 경기에 출전시키는 각급 학교엔 연방자금 지원을 끊겠다는 게 골자다.

두 번째 의미는 미국 사회에서 급증하는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LGBTQ) 이슈에 대한 트럼프식 전쟁 선포의 성격으로 규정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적 입장을 지지하는가 하면 성전환자의 군 복무,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표했다. 취임사에서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은 없다고 선언한 것과 결이 같다.

미국은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보편적 인권의 역차별로 인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법으로 동성애자와 트렌스젠더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이 결과적으로 인권의 해이와 성 도덕의 문란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런 역 차별 문제에 매스를 대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인권의 회복이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있다. 이번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성이 여성 팀에서 경쟁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연방 기금을 받는 모든 학교는 여성 팀에 남성을 포함시키면 '타이틀 9' 위반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증거다.

'타이틀 9'는 1972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서명한 연방법으로, 연방 기금을 받는 학교 및 교육 기관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핵심 법규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는 이 법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성소수자 학생 보호를 위한 이른바 '타이틀 9 개정안'으로 대체된 게 문제의 출발이다.

바이든 정부는 '타이틀 9' 개정안에 대해 트럼프 시절 크게 후퇴한 성차별을 개선해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강화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도리어 동성애와 트렌스젠더의 길로 빠지게 만든 주범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타이틀 9'을 본연의 학생 보호를 위한 인권법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클린턴 민주당 정부 때부터 성소수자 권익 보호 정책을 펼쳐왔다. 전문가들은 이때부터 미국 내에 동성애자가 급증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오바마·바이든 정부로 이어지면서 '차별금지법' 상의 성소수자 옹호 정책이 확대됐고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의 법적 강화에 이어 스포츠 분야에까지 트랜스젠더가 이슈화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 민주당 정부의 성 소수자 옹호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게 공화당이고 그 중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 이번 행정명령 서명식 또한 트럼프 2기가 출발하기 전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1기 행정부에서 시행된 기독교 친화 정책이 강력한 지지층인 백인 주류 사회에 보응하는 차원인지, 보수 개신교인으로서 신앙 양심의 발로인지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따라서 이번 행정명령과 각종 조치에 대해서도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정확한 평가가 나오게 될 것이다. 다만 자신이 "프로테스탄트이며 장로교인인 게 자랑스럽다"고 고백한 것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오늘의 미국이 있게 한 복음 정신을 회복하는 원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숨길 수 없다.

이병일 칼럼

남성 사역 소개 (3)



이 병 일 목사
맨인더 미러
한국지부 대표

남성들을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만들고 그들이 또 다른 형제를 제자화 하며 각각의 개 교회를 도우고자 하는 것이 남성 사역의 주된 목적 이라고 본다면 교회는 남성들의 남성 사역 운동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개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사역에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남성 사역은 Long Term investment (장기 투자)이기 때문이며 이 사역이 필요로 하는 중간 리더들의 부족 그리고 이에 따르는 희생이 너무 크다는 우려 때문일 것입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단기성 남성 집회나 운동에 참여한 남자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에 변화를 보고 구원 받고 변화된 남성들을 목마르게 기다려온 교회와 목회자들이 너무 성급하게 이들을 사역에 투입 시키며 그들의 힘으로 하려는 봉사나 섬김을 통한 부하가 걸리며 그들의 신앙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상처 받고 지친 남성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험을 가진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으며 결국은 일회성 프로그램 형태 또한 어떤 운동의 형태라도 단기적인 투자로 성급하게 결과를 보려던 교회나 담임 목회자들에게 실망을 안겨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목회자나 교회의 잘 못은 아닙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오랜 기간을 살아온 남성들의 특유의 도전성, 또는 감정 억제, 고립과 고독의 문제 그리고 의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남자들의 특수성을 감안 할 때 각 개인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 하기에는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무리 감동이 있다고 해도 그 지속성의 문제에 우리는 도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35년 역사의 맨 인더 미러(Man in the Mirror)의 설립자 패트릭 몰리(Patrick Moley)는 오랜 기간 이에 대한 고민을 하였지만 역시 이 문제의 해결책은 남성들이 정규적인 소그룹모임을 통해 말씀안에서 그들의 삶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위로 받으며 먼저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고 그들이 새벽 2시에도 문제가 생기면 연락 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로 성장 하는 방법을 재차 인지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2024년에 MIM founder인 패트릭 몰리와 MIM Asia의 로버트 림(Robert Lim)은 패트릭 몰리의 남성 사역에 관한 23권의 저서를 종합하여 오랜 기간 남성 소그룹을 위해 절실하게 필요하였던 소그룹 나눔 교재인 'My Journey'를 완성하여 출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My Journey (나의 삶의 여정) 목차
1장 정체성
2장 검증되지 않은 삶을 사는 것
3장 성경적인 크리스천인가 문화적인 크리스천인가?
4장 성장: 더 하나님 중심적인 남성 되기
5장 남자와 성경
6장 남자와 기도

R&R 검토와 성찰
7장 남자와 예배
8장 진정한 성공
9장 결혼: 아내가 나의 최고의 친구임을 인정하기
10장 자녀: 후회를 피하는 방법
11장 남자의 우정: 구별된 친구를 찾고 유지하는 방법
12장 남자의 교만함

R&R - 검토와 성찰
13장 남자의 두려움
14장 남자의 분노
15장 남자의 정욕: 이 강력한 충동을 다루는 올바른 방법
16장 남자와 돈: 성경적 관점
17장 우선순위: 무엇이 중요한지 결정하는 방법
18장 의미: 중요한 의미와 목적을 찾기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 교재를 우리 한어로 번역 하여 여러 한인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교재가 어떻게 사용되어야하며 누구가 이 교재를 제일 먼저 사용해야 하는 가에 대하여 이 교재를 저술한 패트릭 몰리와 로버트 림이 주장하는 사용 방법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2025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 ks@mbts.edu

SINCE 1977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켜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랜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 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is.org
학교주소 | 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 aurahelio@gmail.com
전화 |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PEMF 와 Tera Hertz 테라헤르츠가 만나다! 테라 P-90

세계 최초의 최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30분의 기적!

무료체험하러 오세요!



자연요법, 대체 의학, 예방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 전문가들의 추천

우주인에게 사용되는 PEMF, 생명의 빛 테라헤르츠파로 생성된 올리라이프 테라P-90
PEMF(지구자기장) + THz(빛 파장) + Earthing (땅 에너지) 가 결합된 제품

1. PEMF 전자기 펄스를 발생, 발바닥에서 온 몸으로 열에너지 전달 혈액순환촉진에 도움
2. 테라헤르츠파가 피부에 침투하여 인체의 미세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도움
3. 땅에 어씽한 것처럼 전자를 유입하여 활성산소를 중화하는데 도움을 줌

PEMF란?

지구자기장으로 NASA에서 우주인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장기간 머무는 비행사들은 지구자기장의 영향권 밖에 있기 때문에 뼈와 근육의 손실이 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비행사들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비행사들은 90일간 PEMF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주에서 머무는 동안 근육손실과 뼈의 약화 등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PEMF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테라P-90의 의미도 최소한 90일간의 PEMF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테라 P-90을 30분 사용시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성과

- 2시간 운동 성과 (근육활성)
- 뜸 10회 (체온상승)
- 부황 20회 (혈액순환)
- 마사지 30회
- 훈욕 1시간
- 피부 스켈링 60회 (리프팅)

테라 P90의 효과

- 세포에너지 생성에 도움
-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에 도움
- 신진대사에 도움
- 독소배출(림프)에 도움
- 수면장애에 도움
- 통증과 염증에 도움
- 면역건강 보조
- 뇌건강과 인지능력 증가에 도움
- 우울증/스트레스에 도움
- 지방연소에 도움
- 피로에 도움
- 안티 에이징에 도움
- 시력향상에 도움
- 폐와 신장기능강화에 도움

FDA, SGS, OPMS, ISO 세계적으로 특허 및 승인 받은 제품 158개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 하나의 디바이스로 온가족이 함께!

테라헤르츠와 PEMF의 시너지, 최첨단 건강 혁신! 두 가지 혁신 기술의 만남으로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체험수기

"저는 한의사로서 다양한 치료법을 경험해왔습니다. 테라 P-90를 사용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를 느꼈습니다. 이 기기는 깊은 조직까지 침투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테라 P-90는 비침습적이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Y*** 한의사

"정형외과에서 테라 P-90를 도입한 이후,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과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전자기장이 깊은 조직에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며, 치료 효과를 빠르게 증진시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치료 후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테라 P-90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 J****** 정형외과 의사

"테라 P-90는 물리치료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제 환자들이 테라 P-90를 사용한 후, 통증이 줄어들고 운동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치료 세션에 테라 P-90를 포함시키는 것은 환자들의 재활 과정을 크게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 M** 물리치료사

"피부과에서 테라 P-90를 사용하여 염증성 피부 질환과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기장이 피부 깊숙이 작용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환자들의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치료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 도구로 테라 P-90를 추천합니다." - L** 피부과 의사

grace.olylifeglobal.com 웹사이트 주문 후 2주 후 물건도착

문의 213-434-1170 무료체험 (오시기전 예약필수 월~목 : 오전 11시 ~ 오후 2시)

3055 Wilshirte Blvd #480 ., LA, CA 90010

* 건강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건강과 비지니스 기회를 원하시면 지금 연락주십시오.

민종기 칼럼

트럼프 대통령과 기독교적 가치



민 종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원로목사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에 수십 개의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약 200건에 이르도록 계속될 것입니다. 당선자는 취임 전부터 주변국에 정치적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트럼프를 방문한 후 전격적으로 사퇴했습니다. 당선인은 멕시코 대통령을 압박하여 중남미 이민 행렬 '캐러반'(caravan)을 해체했습니다.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를 회수하고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사겠다는 주장은 당사국과 중국 및 러시아를 긴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47대 대통령과 장관에 의하여 전격적으로 실시되는 충격 조치들은 개인의 윤리적 경향에 관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국내 정책과 국제적 차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의 특성을 단 하나의 시각으로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의 강력한 지원그룹이 복음주의적 기독교 세력임을 감안할 때, 그의 다양한 공약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1776년 영국에서 독립을 선언할 때부터 "종교적 자유"를 위한 강력한 청교도적 신앙의 기반을 가졌습니다. "백인 앵글로-색슨 개신교"(WASP)는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미국의 주류 세력입니다. 기독교는 정당을 초월하여 정치가가 가지는 시민적 교양이자 심리적 안전장치였습니다. 개신교의 '시민종교'적 경향을 이해한 버락 오바마도 처음에는 자신을 "진보적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며,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기 오바마의 반기독교적 젠더 정책과 바이든 해리스 진영의 '문화적 마크르스주의'(cultural Marxism)의 성 정체성 혁명은 많은 중도적 시민을 실망시켰습니다. 민주당 텃밭이던 가난한 백인, 흑인과 히스패닉계가 자녀교육과 경제적 위기의식을 느끼며 공화당을 선택했습니다.

트럼프의 공약과 대통령령은 상당 부분 기독교적 관련성에서 시작됩니다. 성적 다양성(LGBTQ+) 이론에 대한 거부가 첫 주부터 공식화되었습니다. 정부와 군대의 문서에서 성별은 오직 남자와 여자만을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직업군에서 의무화되었던 "다양성, 평등성과 포용성"(DEI: diversity, equality, inclusion) 위주의 정책이 종결되었습니다. 성전환 여성이 여성 스포츠에 출전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학교 내의 종교 자유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과시적일 정도로 보이는 트럼프의 국경 차단과 불법체류자 색출 및 추방 역시 국가의 기독교적 가치의 수호와 관련됩니다. 이는 이전 정부의 빛바랜 "세계화"(globalism) 전략에 대한 거부이자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긍정입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마가'(MAGA) 정책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오는 펜타닐 마약과 범죄자를 차단하려는 노력입니다. 이에 미주한인 10-15만 서류 미비자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콜럼비아 범죄자에 대한 체포와 추방이 콜럼비아 대통령의 거부를 무력화시키고 관철되었습니다. 벌써 수천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체포되어 과테말라와 브라질, 에콰도르와 베네수엘라로 추방되었습니다. 쿠바 관타나모 형무소는 3만 명의 타국인 중범죄자 수용소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복음주의적 국제관계는 이스라엘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원하고, 종교적 자유를 탄압하는 중국 이란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들과의 전선을 분명히 하겠다는 전제를 가집니다.

특히 세계 패권 경쟁에서 중국의 기술발전, 군사력 증강과 영향력 확산은 계속 견제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적 부정선거 카르텔에 대한 수사,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를 앞세운 국내 관료주의 척결은 공정을 구현하려는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찬반을 떠나, 정부를 위한 우리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함을 절감합니다.

한남옥 칼럼

당신은 "아바의 자녀"



한 남 옥 권사
시인, 수필가
나성영락교회 권사

'숨지 말고 나오라', '거짓자아'는 이 책의 시작 부분의 소제목들이다. 왠지 나를 두고 하는 말 같았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누르며 이 책을 읽고 나니, 나의 부족함과 약점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바 아버지의 딸로서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아빠가 안 계신 가정에 장녀로서 식구들에게 꿋꿋하게 보이려고 가면을 쓰고 살았던, 그 가면이 진짜 나인 양 자신 조차 속이고 살아왔던 나를 발견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상처입은 자신을 드러내는 용기를 배울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아 영적 활력을 얻은 책이어서 많은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아바의 자녀'의 저자 브레넌 매닝(Brennan Manning)은 현대 기독교 영성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강연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탐구하여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위로와 도전을 주는 분이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아바의 자녀'는 기독교 영성 서적 중에서도 특별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신앙과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

매닝(Manning)은 사탄이 사용하는 최고의 심리적 무기는 '낮은 자존감'이라고 한다. '밑바닥 수준의 열등감, 자괴감 등 자기혐오는 그리스도인을 무력화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한다. 자신의 가치를 외적 성취나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끊임없이 더 나아지려는 강박 속에서 피곤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살면서 약하고 두렵고 겁 많고 참 자아를 표출할 줄 모르는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곧 거짓 자아의 본성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자신의 실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내어 드릴 때 우리는 평안해진다. "베드로는 내면의 거짓 자아와 친구가 되었으나, 유다는 자신의 거짓 자아에 격분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이 미워질 때가 있다. 그런 자신을 어쩌면 하나님도 미워하시는 줄로 생각하기 쉽다. 저자는 "우리의 죄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가 아니라,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오히려 자기에 몰두하여 혼자 힘으로 끙끙댈 때 하나님은 슬퍼하신다고 말한다. 완벽주의에 지친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면이 아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사랑하신다고 '그만 숨고 밖으로 나오라고 부르신다'고 한다.

저자는 부활 신앙이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생명과 자유의 삶을 누리고, 아바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할 때, 그 사랑에 반응하여 삶을 변화시키고 신앙의 열정과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때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려면 세상의 기준과는 반대되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이를 따라가려는 환상이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매닝은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연민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 박동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느끼는 깊은 친밀감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말한다. 곧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 여정의 핵심이라 말한다. '아바의 자녀'를 읽고 나면, 거짓 자아의 가면을 벗어 던지는 용기가 생긴다. 아바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기어 아버지의 심장 박동을 들으며 아바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힘이 생긴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9단계로 짜인 '개인과 그룹을 위한 스터디 가이드'도 있다. 개인 혹은 소그룹이 모여 깨달은 은혜와 묵상을 나눌 수 있다.

하늘바라기

간구 -김은주

언제까지 일까
끊어질 듯 끊어질 듯 연을 잇고 있어

어떻게 될까
끊이지 않는다면 삭아지려는 가

무엇을 할까
끊어지길 바라기 보다
연합하도록 간구해야 해

김은주 시인은 2012년 한국 청주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를 마치고,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뉴질랜드에서 9년간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전문인 선교사의 길을 걸어왔다. 선교 현장에서 다양한 사역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 미국 캘리포니아 프리스티지대학교에서 목회학(M.Div)을 전공하였고, 2022년 전문인 선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교학적 관점에서 본 선교사 탈진에 관한 비평적 통찰"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2021년부터 캘리포니아 프리스티지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강의했고, 더불어 2023년부터 선교학을 교수하고 있다. 「울타리글벗문학회」 회원, 「미주한인기독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ACTION CAMP에 오셔서 힐링하세요!

가족, 친구, 성도분들과 멋진 여행을 통해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Action Camp 장은…













미국내 가장 좋은 **시설여건, 서비스**

1. 교회 수련회, 단체 할인 혜택
2. 단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연장과 야외 영화도 볼 수 있는 스크린 설치
3. 샤워장, 공연장, 카페, 수영장, 배구장, 농구장, 놀이터
4. 야외 파티와 행사를 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위락시설
5. 디럭스 캐빈(Deluxe Cabin), 오토 캠핑(RV), 인디안텐트(TeePee), 텐트(Tent)장 주변에 전기, 수도, 식탁, 하수도 시설
6. 회원의 경우 캠프사이트나 캐빈을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

ACTION CAMP
FAITH & HOPE

www.actioncamp.cc / larvresort.com

ACTION CAMP
- HEALING
- EDUTAINMENT
- SPORT
- MEDIA
- GREEN

전화예약 or 온라인예약

T. 661-268-1214

7601 Soledad Canyon Rd. Action CA 93510

Scan me!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쓸데없는 부담은 버리고, 진짜 기독교답게

그리스도인, 불필요한 죄책감과 부담감 내려놓고…



불가능한 기독교

케빈 드영 | 홍종락 역 | 템북 | 196쪽 | 15,000원

완벽해야 한다는 틀을 깨고, 진정 자유케 하는 신앙의 길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세상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스스로 영적 실패자임을 인정하고 항상 비참해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목회자인 케빈 드영이 기독교가 요구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 달려가다 지친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경직되고 강박적인 기독교를 새롭게 정의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그리스도언약교회 담임목사이자 리폼드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인 케빈 드영은 미국 전역에서 차세대 복음주의 리더이자 설교자, 강연가, 저자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작년에 생명의말씀사에서 주기도를 다룬 책을 냈지만, 그전에 국내 소개된 책은 201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오랜만에 신학적으로 정통적이고 보수적인 개혁주의를 지향하고 성경적으로 정확하고 분명한 해석을 추구하며 재치와 균형감각이 탁월한 저자 케빈 드영의 책을 템북을 통해 접하게 된 것이 무척 기뻤다.

드영은 기독교인으로서 자주 빠질 수 있는 오해를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성경의 가르침으로 균형감 있게 회복시켜 주는 데 뛰어나다. 〈불가능한 기독교〉는 기독교가 요구하는 삶의 수준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한계를 신자가 만났을 때, 어차피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없어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 그런 생각 자체가 기독교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그런 불가능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도 충분히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독자를 위로한다. 서론에서 저자 드영은 '기독교는 원래 불가능하게 느껴져야 하는가?'라고 묻는다.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요구는 적당함을 용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 바울의 삶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누구도 그 수준의 삶을 살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 뻔하다. 물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신앙의 경주 출발부터 마침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 분명하지만, 드영이 서론에서 자기 달리기 실력으로 예를 든 것처럼, 모든 신자가 신앙의 경주에서 좋은 기록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다.

바울처럼 기록이 좋은 신앙의 선수와 비교하자면 대부분 신자의 기록은 경주에서 탈락할 수준이고,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바로 그런 면에서 드영은 이 책의 필요성을 봤다. "기독교는 불가능한 것이 될 필요가 없다(21쪽)"고 선언하길 원했던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경기를 완주하면 되고,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드영은 이 책을 오해하지 않도록 1장부터 일곱 가지 오류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한다: ①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만큼 선해질 수 있다 ②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해질 수 있다 ③죄는 대수로운 것이 아니다 ④그리스도인이 되면 고난이 없어진다 ⑤자신을 너무 엄격하게 대하지 말아야 한다 ⑥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⑦하나님은 위험을 감수하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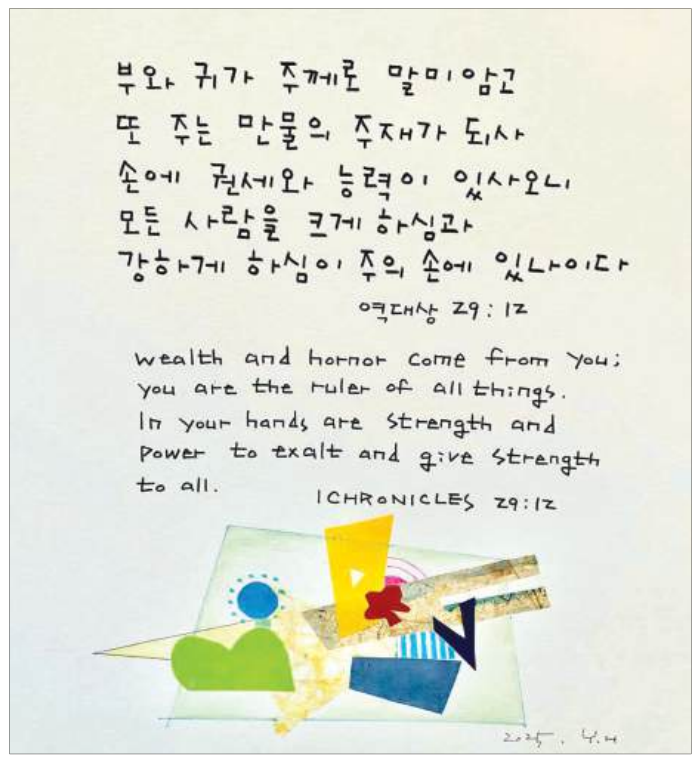
각 오류는 그리스도인이 기독교를 불가능하게 보는 핑계로 작용할 수도 있다. 가령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만큼 선해질 수 있다는 것이 오류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생겼다고 오해할 수 있다. 드영은 그래서 곧이어 각각의 오해를 복음으로 보완한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칭의뿐 아니라 성화에까지 이르고, 완전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여전히 하나님께 죄는 더럽고 부정한 것이며 관계를 망치는 악이다. 그러나 복음은 자백과 죄 용서함을 약속해 우리로 새로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 힘들지만 주가 약속하신 것처럼 그분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분이 함께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계속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힘을 얻고 일어나 의로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비용이 들지만 더 큰 보상을 얻는 일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험을 감수하라고 하시지만,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어서 드영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새로운 마음과 영을 가지고 힘 있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교만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며, 행위를 강조하는 자신의 의도를 불합리하게 비판한 자들에게 성경의 건전한 가르침을 변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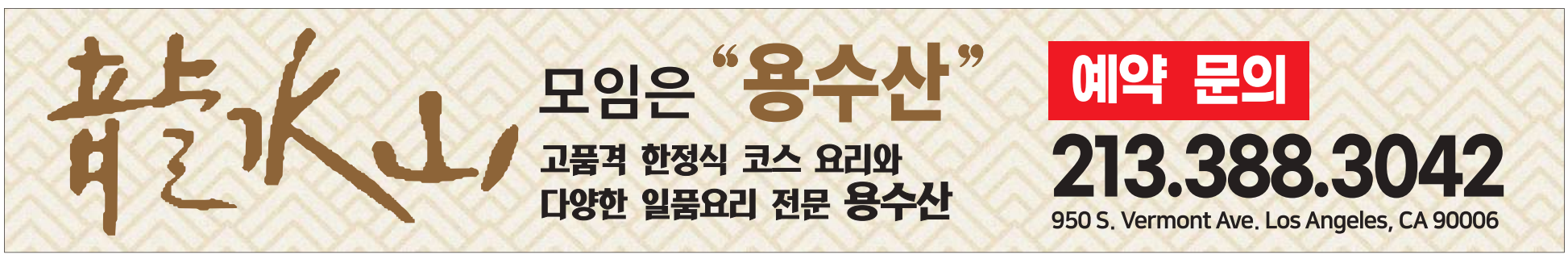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 결코 만족할 줄 모르고 항상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부르지 않으셨다"고 말한다. 우리 각자의 부르심이 분명 있다는 것이다. 말씀과 기도를 대하는 방식과 전도에 힘쓰는 일에 있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감정 중에는 불필요한 감정도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는 돈의 많고 적음 자체를 비판하지 않는다.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웃을 물질로 돕는 것은 기독교가 베풀어야 할 사랑의 구체적 방식이지만, 드영은 세상의 매스컴에서 죄책감을 자극하는 수많은 필요들에 모두 반응할 수는 없다고 선을 긋는다. 쓸데없는 죄책감은 버려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일에 모두 다 참여하고 도울 수는 없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드영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는가보다 어떤 성품의 사람으로 빚어지는가를 생각하며 살라고 권한다. 매일의 삶을 점수로 매기는 삶은 지치게 만든다. 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과 인격을 갖추는 훈련을 하면,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으로 아무개는'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영적으로 세상은 악해져 가지만, 하나님 은혜로 점차 개선되는 것도 분명 있다. 무조건 세상을 더 나쁜 곳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인이 살기 더욱더 힘들어진 땅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평온하고 단정하게 살도록 베푸신 여러 가지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을 그분의 축복을 구하며 살아가자.

드영은 〈불가능한 기독교〉를 통하여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한다. 독자는 이 책을 읽고 불필요한 죄책감과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벼워진 몸으로 더욱더 기독교가 요구하는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청빙

주님의 빛 교회는 1998년에 오렌지카운티에 세워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교회로서, 해외한인장로회(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2대 담임 목사님을 세우기 위한 동사 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 자격요건
1.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며,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실 분
2. 십자가의 복음 중심이며, 제자 되고 제자 되게 하는 주님의 빛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계신 분
3.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사도신경과 장로교의 신앙고백에 동의하고, 그 믿음으로 목양하며 이끄실 분
4. 정규 신학대학원(M. Div) 학위를 가지시고, KPCA 교단에서 인정하는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교단 가입이 가능한 분
5. 미국 거주 및 취업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분

■ 구비 서류
1. 이력서 (사진 포함)
2. 학위증명서(M. Div.) 및 목사 안수증명서 사본
3. 신앙 고백문 및 목회 철학
4. 사모님 신앙 고백문 및 간단한 가족 소개서 (가족사진 포함)
5. 설교 영상 2편 (1년 이내. 파일이나 온라인 주소)
6. 추천서 2부 (추천인이 직접 pdf 파일로 이메일 발송할 것)

■ 접수 및 문의
1. 서류 접수 및 마감 : 주후 2025년 2월 28일까지 (이메일, 카톡, 문자, 혹은 우편 접수)
2. 접수할 곳
revhrju@gmail.com, 전화(562)896-9191(문자나 카톡으로 남겨주세요.)
Lord's Light Community Church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3. 먼저 서류 심사 후, 청빙 후보 목사님들께 개별 통지(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참고 홈페이지 Lordlight.org. Youtube : 주님의빛교회(Lord's Light Community Church)

주님의빛교회 청빙 위원회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통큰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넷플릭스 시리즈 〈중증외상센터〉 (2)

기독 의료인들의 헌신과 지속 가능성

주인공, 기독교 소명의식 닮아
기독 의료인들 헌신 계속되나
비용 문제로 갈수록 힘들어져
개교회나 개인 지원으론 한계
가톨릭처럼 역량 결집 필요해
연합조직 갖추고 재원 마련을

의사의 헌신: 기독교 단체 '파라볼라노이'로부터 유래된 헌신적 의료인의 표상

〈중증외상센터〉의 주인공 캐릭터 백강혁(주지훈)의 매력과 카리스마를 뒷받침하는 요소는 두 가지, 주변을 압도하는 의술과 맡겨진 환자를 살리겠다는 불굴의 의지다. 이 가운데 후자는 서구 역사 전반에 걸쳐 의료인들의 헌신을 추동해온 기독교적 소명의식을 상당 부분 닮아 있다.

환자가 있다면 어디든 달려가 치료하는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료인 이미지는 인류 역사 어디서 처음 발견할 수 있는가? 의술 발전에 기여한 위대한 의사들(고대 이집트의 임호테프,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 등)이야 기독교회 형성 이전 고대 시대에도 간혹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자기 인생과 목숨을 걸고 병자와 다친 이들의 치료에 헌신한 의료인들의 자취는 기독교회 내부에서 처음 발견된다. 주후 3세기경 초기 기독교회 내부에는 '파라볼라노이(παραβολανοι)'라 불리던 단체가 있었다. 이 말은 '두려움이 없는 자, 무모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역으로 전파되기 전에는 이 파라볼라노이라는 말이 검투경기장에서 짐승과 싸우기 위해 자신을 스스로 팔아넘긴 이들, 즉 자발적으로 베스티아리(bestiarii)라 불리던 검투사가 된 이들을 지칭하는 데 쓰였다. 그러나 로마 제국 전체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파라볼라노이라는 용어는 순교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독교인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됐고, 3세기경에 이르러 주로 전염병 지역에서 병자들을 돌보며 전도하는 일에 힘썼던 기독교인 단체를 부르는 말로 그 뜻이 변경됐다.

파라볼라노이는 엄밀히 말해 의료인은 아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치유사역 정신을 실천하는 이들로, 병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 그들이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교회 내 의료인들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다. 이들이 '두려움 없는 자'라는 호칭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초기 기독교 교부 키프리아누스(Cyprianus, 210-258)가 이 단체를 자신의 글에 기록하면서부터였던 것으로 보인다.

250년 경부터 약 10년 동안 천연두, 홍역 혹은 에볼라의 일종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역병이 로마 제국 전역을 강타했다. 키프리아누스는 〈죽음에 관하여〉(De Mortalitate)라는 글에 이 역병의 발발 시기, 증상, 피해규모 등을 자세하게 기록했고, 덕분에 이 역병은 '키프리안 역병'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됐다. 일부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키프리안 역병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당시, 제국 수도 로마에서는 하루 사망자가 5,000명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키프리안 역병으로 로마제국은 수많은 인구를 잃었고, 돌이킬 수 없는 국력 쇠퇴를 맞이했다. 이 암담한 시기 역병이 돌던 지역에서 생존자를 찾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던 기독교인 단체가 파라볼라노이였다. 이들 중 적지 않은 수는 병자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전염병에 감염되어 죽기도 했지만 파라볼라노이는 전도를 위해 병자를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다만 파라볼라노이는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 후 4세기 말 경 기독교 전파에 방해되는 타종교인들을 위압하고 폭력으로 짓누르는 단체로 변질되기도 하였다. 영화 〈아고라〉(2009)에 기독교 광신도로 묘사된 파라볼라노이는 이들이 변질된 시기의 행태를 묘사한 작품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3-4세기 내내 파라볼라노이가 자기 목숨을 걸고 병자들을 돌보는 기독교 전도단체였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들 덕분에 자기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헌신적 의료인이라는 이미지가 서구인들의 마음에 자리잡게 되었던 사실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사의 소명: 자본주의 질서 하의 의료계에서 기독교적 의료봉사를 위한 길

이후로도 기독교인 의사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헌신적 의료인의 표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섰다. 십자군 전쟁 당시에는 구호기사단(Knights Hospitaller)이 순례자나 점령지 내 병자와 빈민 구제에 주력했다. 십자군 전쟁 자체는 가톨릭 교회의 중대한 종교범죄였지만, 구호기사단의 의료 및 구제활동이 가진 역사적 의의도 무시할 수는 없다.

14-15세기 흑사병 당시 많은 의료인들이 환자들을 돌보다 감염돼 죽어갔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수도원이나 대학에서 의술을 배운 성직자나 수녀였다. 다만 이 시기 이들이 보인 헌신의 정신은 당시 교회 권위가 흔들리며 묻혀버린 감이 있다. 많은 가톨릭 성직자들이 직분에 맞지 않는 비리를 저질렀고, 교회가 가르친 의술이 전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힘을 발휘하지 못한 점이 당시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후 헌신적 기독교 의료인의 표상은 19-20세기에 다시 두각을 드러냈는데, 여기에는 서구의 전쟁 양상이 점차 근현대 전쟁으로 바뀐 사실이 크게 작용했다. 18세기만 하더라도 서구 전쟁에서 수십만 단위의 대규모 살상이 일어나는 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당시 전장에서 병사들이 대량으로 죽음을 맞게 된 주 원인은 전투 자체보다 군대에서 발생하는 질병들이었다. 군의 병기나 화력은 아직 충분한 살상력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19세기 화약병기(대포, 소총) 발전이 빨라지고, 가장 결정적으로 근대적 형태의 참호전이 1853년 '크림 전쟁'을 기점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서구의 전쟁 양상은 잔혹함의 극단으로 치닫기 시작했고, 사상자 규모 또한 한 번의 전쟁에 수십만 병력이 기본으로 희생되는 방향으로 변했다. 민간인 희생자 수 역시 이때를 기점으로 급증하기 시작한다.



중증외상 환자를 살리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열혈의사 백강혁의 활약상을 담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중증외상센터〉.

이렇게 전쟁 양상이 대량 살상이 일반화되는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전쟁의 참상에 충격을 받은 기독교 의료인들의 신앙심과 인류애 실천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근현대 간호체계를 확립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Florence Nightingale, 1820-1910), 그리고 적십자 창설자 장-앙리 뒤낭(Jean-Henri Dunant, 1828-1910)이었다. 20세기에는 유럽 내부에서 벌어진 참혹한 전쟁 그 이상으로, 인류 전체를 비참하게 만든 제국주의 식민지 범죄가 성행했다. 그리고 여기에 저항해 피지배 민족의 질병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들이 헌신적인 기독교 의료인의 표상 확립 임무를 계승했다. 대표적으로 알베르트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 1875-1965)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는 올리버 에이비슨(Oliver R. Avison, 1860-1956,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와 연희전문학교 초대 교장),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Lillias Stirling Horton Underwood, 1851-1921) 등 북미 지역 의사들이 선교사로 파송되어 한국 현대 의료체계 확립과 교회 설립에 큰 공로를 남겼다. 그리고 훗날 이들 밑에서 교육받은 한국 의사들 역시 비슷한 길을 걸었다. 세브란스 의전 졸업생 이태준 선생은 몽골에서 의료선교를 하며 당시 몽골 왕실로부터 국가훈장을 받았고, 항일독립운동에도 힘을 보탰다.

역시 세브란스 의전 출신인 현봉학 박사(6.25 전쟁 당시 제10군단 민간고문, 군단장 통역사)는 흥남 철수작전 당시 미 10군단 단장 에드워드 알몬드를 설득해 10만이 넘는 한국인 피난민을 거제도로 구출하는 데 힘쓴 공로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교파는 다르지만 가톨릭 교회 이태석 신부(1962-2010) 역시 수단에서 의료선교를 행하며 헌신된 의료인의 표상을 세운 인물로 유명하다.

아쉽게도, 현재 전 세계적으로 헌신적인 기독교 의료인이라는 표상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주된 이유는 전 세계 의료계가 자본의 논리에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라 해서 의사들의 진료, 의약품, 그리고 의료장비 비용이 적게 들었던 것은 아니다. 일례로 세브란스 병원은 1900년 미국 석유재벌 루이스 세브란스(Louis Henry Severance)가 기부한 2만 5천 달러(현재 가치로 대략 130억 정도)를 가지고 온전한 서구식 병원으로 개축할 수 있었다. 과거에도 병원 운영에는 상당한 자본이 필요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의료 및 제약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병원 운영에 드는 비용 또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제는 과거처럼 헌신적으로 의료봉사를 하려 해도, 약품과 의료장비가 없어 인술(仁術)을 펼치는 것이 불가능할 지경이 되었다. 일례로 국경없는 의사회에서 봉사한 의사, 간호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다. 의료봉사 현장에 가면 충분한 약품과 장비가 지원되지 않아,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을 죽어가게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 19면에서 계속

말씀 팔찌
손목 위의 은혜
간편하게
말씀팔찌에
핸드폰을 올리면
바로 성경경씀이...
$ 18.99
$13.99
개인 및 소량 주문 웹사이트에서 구입가능
50개이상 단체주문은 전화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교회 임직식, 창립 행사 선물
단체주문 상담환영
말씀팔찌에 핸드폰을 대기만 하면 하루의 성경 말씀이 펼쳐집니다!
원하는 로고나 글씨를 새길 수도 있어 특별한 선물이 됩니다.
교회 임직식, 창립 행사, 선물용으로 추천!
자녀들이 말씀과 가까워지는 특별한 방법!
간편하게 매일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 지금 경험해 보세요!
01 말씀팔찌
02 말씀팔찌
03 말씀팔찌
04 말씀팔찌
SELAH.
문의
기독일보 정다혜 실장 (213-434-1170)
Email : chdailyla@gmail.com
www.j1mart.com

새들백 담임목사, 트럼프 취임식 SNS 게시물 논란되자 사과

앤디 우드 목사 "이 순간을 사용하여 우리 교회를 더 큰 연합으로 이끄실 것"

미국 새들백교회의 담임인 앤디 우드 목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관련 게시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논란이 되자 댓글 폐쇄 후 교인들에게 사과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우드 목사는 최근 설교를 통해 "아마도 그런 게시물을 올리기 전 맥락이 더 풍부했거나 다른 사진이 있었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논란으로 인해 먼저 교회 직원들에게 사과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과 만나 이 게시물로 인해 여러분에게 추가업무가 주어졌고 아마도 방해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사과했다"라며 "직원들이 많은 일을 정말 열심히 했고, 그로 인해 많은 직원들이 수십 시간을 (낭비한 것에)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우드 목사는 지난 1월 20일(이하 현지시간)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의 사역에 더 많은 공간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축하했다. 그는 "오늘의 취임식은 아름다웠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은 순간이 많았고,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복음의 희망을 가리키는 멋진 기도가 있었다"고 게시물을 작성했다.

그는 "역사상 다른 시대를 여는 순간이다. 권력의 이 이동에는 신성한 기회의 창이 있이다. 정부는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 없지만, 새로운 행정부는 확실히 우리의 사역을 위한 더 많은 공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우드 목사는 이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과 대통령으로서의 당신의 역할에 대한 의도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한다"라고 기도문을 올렸다.

그러나 우드 목사는 "의견 불일치를 감당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의견이 '분열적'이어서 댓글 기능을 꺼버렸다"고 추가된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게시물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사진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날 친구들과 저녁식사 후 2백여개의 댓글이 달렸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다. 우드 목사는 논란이 하룻밤 사이 가라앉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다음날 아침에도 그의 정치적 충성심에 대해 논쟁하는 사용자들의 댓글이 4백개가 넘었다고 했다. 그는 "다음날 아침 일어났는데, 제 게시물에 4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매우 적대적인 것 같았다. (댓글을 단) 사람들이 서로 대적했기 때문에 그냥 게시물을 닫았다. '앤디 목사는 매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인가'라는 질문이 많았다"고 했다.

앤디 목사는 교인들에게 이 게시물 사건을 다룰지 여부를 놓고 고민했다. 직원들과 만나 피드백을 받은 후, 그는 일반 회중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앤디 목사는 "어떤 분들은 새로운 행정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나 단체에 대한 저의 사랑의 수준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셨을 것이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다"라며 "새들백은 모든 계층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섬으로써 희망과 치유를 찾을 수 있는 교회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우드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의 구세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분들은 제 게시물이나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올렸다는 사실, 또는 그의 모든 행동에 동의한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하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나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인간이라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 그는 세상의 구세주가 아니며,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외의 다른 인간에게 '구세주'라는 칭호가 주어질 때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했다면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우드 목사는 취임식에 대한 언급은 선의였지만, 게시물이 너무 성급하게 작성되었으며, 특히 온라인에서의 발언을 '용감하고 현명한 사람의 신뢰할 수 있는 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드 목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제한으로 인해 게시물 사진을 변경할 수 없었고, 아내와 장로들과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눈 후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스테이시와 장로들과 논의한 후, 그 자리를 그대로 두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교회 전체의 중요한 시간에 있으며, 원수가 혼란을 노리고 있다고 믿는다"라며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순간을 사용하여 우리 교회를 더 큰 연합으로 이끌고 싶어하신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미경 기자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새들백교회 앤디 우드 목사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 스크린샷. ⓒInstagram/pastorandywood

➔ 19면 칼럼 〈기독 의료인들의..〉에 이어서

〈중증외상센터〉의 주된 갈등 요인, 백강혁과 그의 팀이 자주 겪는 딜레마 상황 역시 의약품이나 의료장비 비용 부족이다. 백강혁이 그의 사명감에 따라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지원되어야 한다. 백강혁은 초현실적 의술과 불굴의 의지, 그리고 정치적 센스를 발휘해 문제를 헤쳐나가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의사들이 신앙에 따라 혹은 직업윤리에 따라 어려운 환자들을 치료하려 해도 비용 문제로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슈바이처 박사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 명성을 얻기 전까지 자신이 아프리카 가봉에 설립한 병원 운영비 마련이 힘들어 수시로 유럽을 오가며 저서 판매, 연주회(그는 앨범까지 낸 전문 파이프오르간 연주자였다), 강연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곤 했다. 과거 기독교인 의사, 의료인들이 행했던 봉사 방식이 이제는 현실적 조건들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로 인해 기독교계에서 감당하는 의료봉사 규모 역시 줄어들고 있다. 그 결과 과거 기독교계 내에서 자주 등장하던 헌신적인 의료인도 이제는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자본주의 질서가 의료계를 지배하는 현실에서 과거 통용되던 헌신적 의료인의 표상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이제는 보다 현실적인 방식으로 기독교 의료인의 소명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 저소득 국가의 어려운 이들,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을 위한 봉사는 당연히 유지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의료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해, 각 교회의 단독 지원이나 기독교인 자선가의 지원에만 의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신자들 개개인의 성금을 모으는 방식 역시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는 가톨릭 교회의 의료봉사 및 의료복지 지원 방식을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교회들의 역량이 한 곳으로 모여 있기에, 그만큼 규모가 있고 체계적이며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향후 기독교계가 과거와 같이 헌신적 의료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의료인을 양성하려면, 그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연합된' 조직을 갖춰야 하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별적·산발적 방식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개진하는 것만으로는 전도에 큰 효력을 발휘하는 헌신적인 소명 실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중증외상센터〉의 줄거리는 한 영웅적인 의사의 사명감에 관한 서사인 동시에, 현대 의술이 자본주의 질서에 지배되고 있음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서사이기도 하다. 역량 있는 교회들일수록 선교를 위해, 이웃 사랑의 신앙 실천을 위해 어려운 이들, 가난한 이들이 최소한의 부담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중증외상센터〉의 주인공 백강혁처럼 환자 치료에 인생 전부를 건 헌신적 의료인은, 이제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기독교계 내부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중증외상센터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 혜 영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치과 Up to $4,000~ Everyday Allowence(마켓, 유틸리티, OTC등)
안경, 보청기 Flex Card, Silver Sneaker + Extra Exercise 등등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
메디케어 &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신 분!
새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
지방에서 이사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와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SHARING BREAD FOR SOUL

사순절 금식을 나눔의 금식으로!

사순절 기간 하루 한끼 금식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소망을 나눕시다

World Share USA 홍보 대사



전용대 목사



지경 교수



목사님! 성도님!
2025년 사순절이 다가옵니다. 거룩한 사순절 기간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닮아 가는 축복된 계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삶과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닮은 나눔과 사랑의 실천으로 영혼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의 영혼도 살리는 축복의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사순절 나눔의 금식은 사순절(40일) 기간에 한끼씩 금식하면서, 영육에 가난한 어린이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여 절약한 선교비(3불X 40일)를 선교지에 보내는 영성 훈련과 사랑의 실천 캠페인 입니다. 기도, 금식, 나눔 그리고 선교를 함께 실천하는 축복된 사순절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World Share USA 대표 강태광 목사외 임직원 일동

2025 사순절 개요 시작일: 3월 5일 ~ 종료일: 4월 19일

World Share USA는 소망학교(아이티, 도니미카), 고아원(수리남), 전쟁 희생 유가족(우크라이나) 돕기를 합니다.

어떻게 참가할까요?

개인 월드쉐어USA로 사순절 나눔의 금식에 참가 통보 (가능한 미리 공지 및 통보 해주시면 사순절 기간을 더 잘 보낼 수 있습니다.)하시고, 사순절 금식 선교비를 월드쉐어USA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교회 나눔의 금식 참가의사를 월드쉐어USA에 알려 주시고, 성도들에게 참가를 권면하시고 성도들의 금식비 선교비를 월드쉐어 USA로 전달하십니다.

월드쉐어 USA 아이티, 수리남, 도미니카의 극빈지역 아동들과 고아원 아동들의 사순절 기간에 양육 프로그램과 영혼을 위한 빵을 나누는 SBS (Sharing Bread for Soul)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2025 사순절 나눔의 금식 준비위원회



민경엽 목사 준비위원장



박세헌 목사 부 준비위원장



김영일 목사 준비위원



안신기 목사 준비위원



양경선 목사 준비위원



최국현 목사 준비위원



이인규 목사 준비위원



써니김 목사 준비위원



김은목 목사 준비위원



진건호 목사 준비위원



양국민 목사 준비위원

Sharing Bread for Soul World ShareUSA

후원문의 (323)578-7933 강태광 목사

3123 W. 8th St. #206, Los Angeles, CA 90005